



“그 쌤의 이중생활”

열정 있는 교사들의 맞춤 채널
‘열정기백쌤’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성기백 교사



02

2020
VOL.30

◀ 어제, 기억하기 • The-K 인터뷰 _ 틀 밖에서 창의력을 펼쳐라,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 김경희 교수

▶ 오늘, 생각하기 • The-K 리포트 _ 학습 시간은 변수, 학습 깊이는 상수! 미국의 ‘칸 랩 스쿨’

⏸ 지금, 쉬어가기 • 더-쉽 _ 느리게, 여유롭게, ‘제주 한 달 살기’에서 찾는 침표

▶▶ 내일, 행복찾기 • The-K Focus _ 2020 ‘공제회 복지 서비스 올 가이드’

📱 웹진



Contents

04 여는 글
겨울 들판을 서성이며



◀ 어제, 기억하기

- 06 에세이
특별한 졸업선물을 위한 72시간,
그것은 사랑이었다
- 08 The-K 갤러리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 10 The-K 인터뷰 1
틀 안의 공부를 벗어나 틀 밖에서
창의력을 펼쳐라
_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김경희 교수
- 14 The-K 인터뷰 2
스마트 교육으로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_ 대구 하빈초등학교 신민철 교사

18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
사법부의 전설이 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 오늘, 생각하기

- 22 The-K 스페셜
미래 기술은 미래 학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26 The-K 리포트
학습 시간은 변수, 학습 깊이는 상수!
미국의 '칸 랩 스쿨'
- 28 공간의 재구성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_ 충주 양성초등학교
- 32 [+25] 그 쌤의 이중생활
열정 있는 교사들의 맞춤 채널
'열정기백쌤'
_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성기백 교사
- 36 [+35] Be Myself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 38 [+45] 티처&티처
학부모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수시와 정시에 대한 착각을 버려라
- 40 [+55] 인생 2모작
봉주르! 몽마르트
_ 화가 민형식

발행일 2020년 2월 1일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인 차성수

기획 홍보마케팅부 미디어소통팀
유종훈, 이정우, 김경희, 김충환, 황수현

편집 수석기자 이영경
객원기자 이경희, 이성미, 정라희, 김유리
교열 정혜영

디자인 아트 디렉터 이영임
디자이너 김도윤

사진 포토그래퍼 김도형, 권대홍

법률 자문 김용욱 변호사(법무법인 JP)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이팝 웹개발팀
디자인, 제작 (주)이팝 02-514-7567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한정된 부수만 발간하여 학교나 기관으로 발송해 드리며,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지금, 쉬어가기

44 지금, 여기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인도양의 섬나라,
_ 스리랑카

50 아름다운 동행

한 박자 쉬어가는 길,
남원굴 그녀들의 서울 힐링 여행
_ 오은영, 김수민, 윤미선 회원의 우정 여행기

56 라이프 연구소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불편한 질환들

58 더-쉽

느리게, 여유롭게, ‘제주 한 달 살기’에서
찾는 심표



내일, 행복찾기

The-K Focus

62 일루션 아트로 황홀함을 선사하다
이은결 매직콘서트 「THE ILLUSION」

64 The-K 휴스테이

영상 체험단에 도전하다!

68 The-K 은빛동행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Ⅲ

70 2020 ‘공제회 복지 서비스 올 가이드’

74 The-K Family

The-K서드에이지를 가다

76 The-K News

문화행사 초청 및 The-K호텔 할인 소식

78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_ 보험 2편



지상 강의

80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시대 변화와 셀프 리더십’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겨울 들판을 서성이며

무채색으로 황량한 겨울 들판에
초록 포인트로 활력을 주는 겨울 보리가 반가운 계절입니다.

꽁꽁 얼어붙은 땅에서도 푸른 싹을 키우는 강한 힘으로
예부터 든든한 봄을 맞이하는 동력이 되어주던 겨울 보리처럼,
2월의 「The-K 매거진」은 기나긴 겨울 일상에 활력이 되어줄 이야기들로
마음 한 편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를 밖에서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창의력 교육에 앞장서는 김경희 교수님과
체육 수업 활성화를 위한 채널을 열정적으로 운영하는 성기백 선생님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현장을 뜨겁게 꿈꿨습니다.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운 인도양의 눈물, ‘스리랑카’와
누구나 머물고 싶은 아름다운 ‘제주 한 달 살기’로 쉼 에너지를 가득 채웠고,
휴스टे이 영상 체험단과 자서전 출간으로 열정의 온도를 끝없이 높이는
퇴직회원들의 스토리로 마음을 훈훈하게 지켰습니다.

초록빛 싱싱한 키 작은 들풀이 저만치 밀려오는 따스한 햇볕을 기다리듯
새봄을 꿈꾸는 설렘 가득한 옹크림에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㉔



특별한 졸업선물을 위한 72시간, 그것은 사랑이었다



글, 그림 정우정
(경기 성지초교 교사)

졸업식 날 처음 고백해버렸다.
“선생님은 올해 정말 행복했어!”
“저희도요!”

정성껏 그린 연필 초상화 액자와 모두의 얼굴이 담긴 우리 반만의 초상화 앨범을 선물했다. 아이들은 소중히 받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특별한 졸업선물을 주고 싶었다. 힘들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며 즐거웠던 올해를 남기고 싶었다. 다른 학교로 전근을 앞둔 때여서 더욱 아쉬웠다.

‘아이들의 초상화를 그려줄까?’

쉽지 않은 결심이었다.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걸 알기에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다.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첫 아이를 그리기 시작했다.

24명을 그리는 건 역시나 어려웠다. 적어도 한 사람당 3~4시간씩 걸렸다. 학기 말이 되자 성적 처리와 부장 업무로 정신없이 바빠졌다.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저녁만 먹고 굶아떨어지기 일쑤였다. 이 힘든 걸 괜히 시작했나 후회도 했다. 짬짬이 했지만 몇 주 동안 2명밖에 그리지 못했다.

마음이 급하다고 대충할 수는 없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림을 그리고 싶진 않았다. 얼굴은 관찰하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다. 아이들의 사진을 찬찬히 관찰하고 조심스럽게 연필을 들었다. 모든 순간의 정성이 그림에 담기길 바랐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었다.

학년말 업무 처리로 정신없던 어느 점심시간, 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이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선생님! 진영이랑 수찬이가 싸워요!”

가장 덩치도 크고 힘이 센 진영이가 수다쟁이 수찬이와 다투고 있다는 것이다. 나가보니 발길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급히 싸움을 말렸다. 아이들을 보낸 후 진이 빠져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12월 학년말의 6학년은 정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날은 하나도 그리질 못했다. 하필 그리던 아이가 진영이었다. 피곤한 몸으로 앉아 그리려는데 진영이에 대한 속상함이 밀려왔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세다고 다른 친구들과 크고 작은 다툼이 제법 있었다. 힘들게 했던 모습들이 떠올랐다.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만둘까…….’

쉽게 연필이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다시 진영이 그림 앞에 앉았다. 초상화는 한 사람만 온전히 바라보고 집중하는 시간이다.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진영이와의 여러 일들이 떠올랐다. 진영이가 항상 말썽만 부린 건 아니다. 분리수거 때면 무거운 폐휴지 상자를 번쩍 들어 날라주었고 대걸레 청소를 힘들다 하지 않고 쓱쓱 잘해 주던 아이였다. 찬찬히 떠오른 기억에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연필을 들고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아직 6명이나 남았다. 졸업식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날이었다. 결국 퇴근 후마다 집 근처 새벽까지 문 여는 카페로 갔다. 마지막 그림을 완성하고 나오던 새벽 2시, 겨울바람이 알싸하게 코끝을 스치던 그 날을 잊지 못한다.

“와! 시원하다!”

벅찬 마음에 추운 줄도 몰랐다. 몇 날 며칠 새벽까지 지새느라 힘들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없이 소중한 기억이다. 그렇게 졸업식 이틀 전, 24명의 연필 초상화를 모두 완성했다.

졸업식 전날, 그림을 액자에 소중히 넣었다. 감격스러웠다. 처음 시작할 때 할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심스러웠던 도전이었다. 몸도 마음도 힘든 때였지만 한 명씩 완성되어 가는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면 멈출 수가 없었다.

24명, 모두 7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없이 바라보며 그리던 선생님의 시선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다. 예뻐던 아이들, 서로의 경험과 성장을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었던 아이들이었다. 반 전체가 아닌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마음에 들어왔다.

‘그림 속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으면 좋겠어. 힘들거나 자신이 혼란스러울 때, 작은 힘이 되었으면 해. 너희 모두 선생님의 시선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마.’ ㉞



*학생들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정우정 선생님은 행복한 교실을 가꾸기 위해 항상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사랑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

「The-K 갤러리」는 ‘한국교직원미술대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전국 교직원들의 문화예술 창작품을 감상하면서 바쁜 일상,
‘지금, 행복,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수묵담채화 | 106x72cm, 2012

화판을 들고 나가면 현장에서 느끼는 빛과 사물들의 감성이 내 맘에 가득히 스며들고, 때때로 찬바람과 따스한 기온이 만나 묘한 체득을 하게 된다. 산과 나무, 바위, 그리고 힘겹게 졸졸 내리는 시냇물들이 교향곡이 되어 나의 붓은 어느새 지휘자의 손놀림으로 변해 있다. 항상 실경사생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산수는 쉽게 화폭에 담겨지지 않음을 알면서도 늘 마무리하고 돌아서면 고맙게 느껴진다. 마지막 겨울을 남기고 있는 원주 치악산 입구에 앉아 필촉과 화폭에 찾아오는 봄바람은 차고 겨울이 머물고 있는 풍경을 느끼기에 햇살이 좋아 이 모든 것이 함께 속삭이듯 그려냈다.

봄을 기다리는
치악산

송병진
횡성중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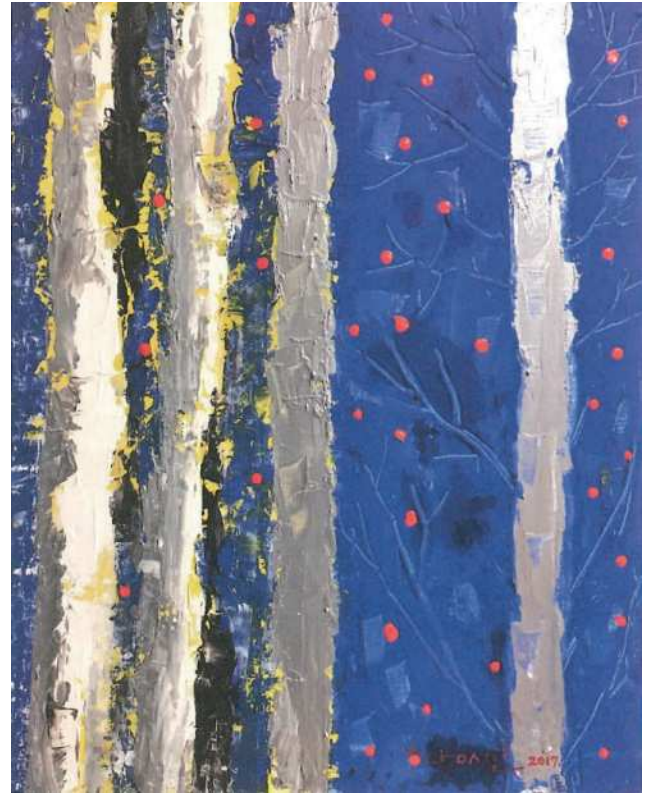


연애

황수인
고흥동초등학교

혼합재료 | 20호, 2017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연애(戀愛)를 표현.
석고와 아크릴 물감을 혼합하여 평면적일 수 없는 연애를
표현했다.



Elizabeth
de Borbon

이혜선
호원고등학교

Acrylic, Oil on canvas, Silk screen |
72.7x91.9cm, 2013



동물은 특별히 나에게 창작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신선한 생각을 하게 해주는 귀중한 소스다. 동물은 오래 전부터 인간의 주위에서 파트너로서 함께해 왔다. 동물이 속한 자연은 위대하며, 그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그러나 그 관계가 언제나 우호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것은 아니다. 인간은 미래의 일은 생각하지 않은 채 종종 동물을 대량 학살하기도 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기도 한다. 나는 이러한 동물에 관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물을 통한 사회의 풍자를 화두로 한다. 나는 권력의 상징인 왕관을 만든 인간처럼 왕관이나 뿔을 쓴 개이 모습이나 인간의 주거공간을 장악한 동물들의 모습을 통해 동물이 인간을 지배하는 역설적인 사회를 보여주고자 한다.



틀 안의 공부를 벗어나 틀 밖에서 창의력을 펼쳐라



강렬한 붉은 원피스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흔히 접하던 대학교수의 옷차림과는 사뭇 다르다. '대학교수란 이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의 틀 안에서 그를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답답한 교육 현실을 벗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그가 집중한 분야는 '창의력'이다. 그렇다면 창의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 실마리를 창의력 교육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김경희 교수에게서 들어보았다.

글. 정라희 사진. 김도형

미국 윌리엄메리대학교 교육심리학과 김경희 교수

다른 것을 싫어하는 사회에서 다르게 살기

약 15년 전부터 공식 석상에서 빨간 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김경희 교수의 별명은 '닥터 레드(Doctor Red)'다. 누군가는 '너무 튀다'라며 고개를 옆으로 저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개성이 묻어나는 차림새는 그를 어디서든 한 번에 알아보게 하고, 이후에도 오래도록 기억하게 한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에 자신을 맞추느라 주눅 들었다면, 지금의 그는 없었을 것이다.

“한국에서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지적을 받은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때부터 토론이 시작되는데, 한국에서는 ‘너는 왜 그래’라고 하는 거죠. 정해진 틀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무조건 지적을 받았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속담을 일상적으로 겪었던 시절, 한국에서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학생을 위한 교사’와 ‘승진하는 교사’의 진로는 확연히 달랐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다른 교수법을 도입하면 학교에서는 ‘일을 키운다’라며 근무 평가를 박하게 했다.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장려하지 않고 도로 죽이는 환경이었다.

●
 “누구든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으면
 이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판력과 융합력이 더해져
 창의력으로
 이어지죠.”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은 높다. 우수한 인재들이 교사로 임용되고 있지만, 정해진 수업과 과중한 행정 업무를 소화하느라 연구할 시간이 부족하다. 학교를 넘어 전반적인 교육 환경을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창의력이 중요하다’고 말만 할 뿐, 막상 한국의 교육은 창의력과 거리가 멀다. 좋은 대학에 가려고 정해진 코스대로 ‘열심히’ 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남과 협력하기보다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현실에서 창의력이 자라기는 힘들다.

“옛날에는 무조건 외우는 방식이 통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아닙니다. 과거에 세계를 호령했던 기업 중에 지금도 선두를 달리는 기업이 많지 않죠. 과연 그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열심히 하기보다 다르게 해야 합니다.”

다른 점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더하라

김경희 교수는 창의력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 영재아동교육연합(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의 창의력회 회장을 역임했고, 2018년에는 세계 창의력 교육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토런스상’을 외국인 최초로 받았다. 그가 미디어에서 주목받은 계기는 2010년에 ‘미국의 창의성 위기’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미국 아동과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 30만 건의 창의력 검사 분석 결과, “미국의 IQ는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창의력은 1998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였다. 이 연구 결과는 당시 미국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에서는 10년에 한 번씩 IQ와 관련한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이전까지는 IQ가 올라가면 창의력도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연구해보니 그렇지 않은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들의 이력을 살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IQ가 높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나 세상을 바꾼 혁신가의 공통점은 높은 지능이 아니라 뛰어난 창의력에 있어요.”

창의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노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은 창의력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으로 오해하지만, 김경희 교수는 “기존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서 가치 있고 색다른 것을 만드는 힘이 창의력”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곧 ‘전문성’이다. 전문성을 갖추려면 최소한 10년은 기존의 것을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남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다른 지점을 발견하고 새로움을 더할 수 있다.



창의 영재를 키우는 부모의 힘

모든 아이는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나 자라면서 부모나 학교, 사회에서 정한 틀 때문에 잠재력을 잃어버린다. 30년간 창의력 교육 연구를 해온 김경희 교수는 아이들이 지닌 잠재력을 창의력으로 싹 틔우는 네 가지 요소로 '4S'를 꼽았다. 그가 직접 정리한 4S는 '밝은 햇살(SUN)', '거센 비바람(STORM)', '다양한 토양(SOIL)', '자유로운 공간(SPACE)'이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배움을 즐기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는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견문이 넓어진다. 나아가 자신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졸업자 중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의 비율은 10% 내외입니다. 학벌이 아니라 스스로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아쉽게도 대다수 동양인은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풍토에서 자라면 한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결과는 같아요. 그래서 부모가 달라져야 한다고 항상 말합니다.”

제도를 바꾸려면 기나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태도는 마음만 먹으면 바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김경희 교수는 “창의 영재를 키우는 이는 부모”라고 말한다. 아직은 가정에서 엄마가 주 양육자를 맡을 때가 대부분인 까닭에, 어쩔 수 없이 엄마의 역할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한국의 아빠들은 아이들을 권위로 누를 때가 많았다. 대부분 ‘버릇이 나빠질까 봐’라는 이유를 대지만, 그는 “지나친 겸손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말한다. 서로 존중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튀어도 괜찮다.

각자 개성 있게 살수록 협력은 더욱더 중요하다. 연구 결과, 상상력이 뛰어난 인제는 비판력이 약하고, 비판력이 강한 인제는 상상력이 약한 편이었다. 결국 창의력 교육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것이다. 어쩌면 ‘틀을 벗어나라’는 조언을 가장 깊게 새겨야 하는 이들은 어른들이 아닐까. 틀 밖에서 아이들의 미래를 보면 세상이 달라진다. (K)





「The-K 인터뷰2」는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는 스마트 교육으로 교육 혁신을 이끄는 신민철 교사의 신나는 수업 현장을 함께하세요!▶



대개 사람들은 익숙함에 지배당한다. 새로운 것은 어렵고 낯설며 불편하기 때문이다. 신민철 교사가 학생들에게 태블릿을 쥐여 주고 새로운 형태의 수업을 시작했을 때 세간의 시선은 매우 상반된 것이었다. 호기심 혹은 의구심. 그 경계를 뛰어넘어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있는 신민철 교사를 만나 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김도형

스마트 교육으로

대구 하빈초등학교 신민철 교사

수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스마트 교육? 스마일 교육!

하빈초등학교는 동대구역에 내려서도 택시로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작은 학교다. 스마트 교육이 꼭 대도시의 첨단학교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나 택시가 학교로 접근할수록 이곳에서 혁신적인 스마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놀라운 것이었다.

신민철 교사를 만나러 간 날은 그가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수업 날이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타 학교로의 전근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민철 교사의 애뜻한 분위기와 방학을 앞둔 학생들의 온도가 사뭇 달라 웃음이 비죽 나왔지만 어쨌든 밝고 따뜻한 학생들의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진다.

마지막 수업은 '작가의 작품 속으로'라는 미술 과목의 단원이다. 통상 교과서와 필통, 노트 등으로 번잡할 책상이 아주 깔끔하다. 학생들이 모두가 책상 위에 각자의 태블릿만을 올려두고 있었다. 수업 시작 전에 교사와 학생들 모두가 우렁차게 기합을 넣는다.

“목소리는? 크게! 표정은? 밝게! 수업은? 신나게! 레디~! 액션!!”

수업이 시작됐다. 구글 아트앤컬처로 들어가 고흐의 작품을 감상하고,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나만의 감상문을 적어본 뒤 마지막으로 개별 발표 시간을 가질 거라고 신민철 교사가 예고한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각자 태블릿을 지닌 학생들이 과연 수업에 온전히 집중할까 의구심이 가득했으나 수업 과정은 사뭇 놀라웠다. 학생들은 고흐의 수많은 작품을 태블릿을 통해 감상하고 그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작품에 하트를 눌러 자신의 카테고리에

답았다. 그리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 그곳에 자신이 고른 작품 묘사와 자신의 느낌을 적었다. 판짓을 할 새도 없어 보였다.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에 들어오는 상황은 교사의 태블릿에 모두 하나하나 체크가 됐고 학생들의 태블릿 내 행적들이 히스토리로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이 디지털 수업의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다. 바로 자발성과 소통이다. 고흐 작품을 살펴보던 학생들이 미술관 로드 뷰를 발견하곤 신나서 모둠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친구의 감상문에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거나, 고흐 작품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고갱의 정보까지 찾아보는 등 학생들 모두가 스마트 수업 자체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에 대한 몰입과 즐거움은 덤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그가 스마트 교육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것은 2017년 군 복무를 마치고 하빈초등학교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 처음으로 답임을 맡은 4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그때, 우연히 만난 ‘칸 아카데미’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다. 미국의 펀드매니저 출신인 살만 칸이 빌 게이츠의 후원으로 만든 온라인 무료강의 사이트 ‘칸 아카데미’를 접한 신민철 교사는 그것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만드는 데 성공했다. 학생들이 무엇을 모르고, 무엇에 취약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교사의 맞춤형 가르침에 훌륭한 지표가 되었다.

“학생들이 태블릿을 하나씩 놓고 수업을 시작한 것은 2018년 4월부터였습니다. 저 역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 교육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죠.”

그러나 스마트 교육은 쉽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었고 인프라도 없었으며 학부모는 인터넷 중독을 걱정했다. 동료 교사들조차 이걸로 과연 교육이 될까? 긴가민가했던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딱 3년이 걸렸습니다. 첫 해는 교실을 바꾸고 두 번째 해는 학년을 바꾸고 세 번째 해에는 학교를 바꿨던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교실부터 시작했는데 제게는 동학년 교사들과 같이 가야 하는 게 매우 중요했죠. 그래야 시너지가 생기거든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교사들과 답소를 나누며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씩 익혔어요. 공개 수업도 자체적으로 많이 했고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도 했습니다.”



“생각하는 능력, 협동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작업 능력, 발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습의 주체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했다. 교사들이 좌절하는 것도 바로 이 첫 단계다. 스마트 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만 볼 줄 알지 가장 기본적인 로그인을 비롯해서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것이다.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는 딱 일주일이 걸립니다. 교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해주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이런 교육은 할 수 없어요. 학생들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좋은 파트너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학년을 맡고 다시 스마트 기기 활용 기능을 익히는 교육이 어떻게 보면 힘든 과정일 수도 있어요. 올해 4학년에게 처음 스마트 기기 트레이닝을 시킬 때 작년에 배웠던 학생들을 부릅니다. 언니, 오빠가 동생들을 가르치면서 우애도 다지고 소통능력도 키우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학생들의 목소리로 알려주는 게 더 좋아요. 저는 학생들을 그냥 팀, 내 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교육으로 진화하는 학생들의 능력

스마트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신민철 교사는 “아이들은 여기까지일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항상 그 편견을 깨곤했다”고 고백했다. 자신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예시 자료를 보여주면 학생들은 언제나 그것보다 훨씬

썬 더 뛰어난 결과물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생각하는 능력, 협동하는 능력, 대화하는 능력,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작업 능력, 발표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면 스타트업 기업의 직원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민철 교사는 이야기 끝에 자신의 반을 두고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자신의 역할은 수업이고, 학생들의 역할은 기업 안에서 각각 따로 있다는 것이다.

“제가 꿈꾸는 교실 플랫폼은 위워크(WeWork, 미국계 사무실 공유기업)이고 제가 원하는 교실의 모습은 스타트업입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던져주면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고 저 역시 거기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우는 거죠. 즉 지식도 있지만 자신의 경험도 합쳐서 진정한 지식으로 구성되길 기대하는 겁니다.”

신민철 교사는 이 시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짐을 강조했다. 지식은 찾기 쉬운데 어떤 지식이 양질의 지식이고, 어떤 지식을 추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식을 어떻게 자기화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사의 역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사는 티처가 아니라 수업 디자이너라는 그의 말이 강렬하게 남는다.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티칭이나 코칭을 넘어서는 게

또 있었습니다. 바로 교사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이예요. 아까 이야기한, 저를 한 명의 리더가 아닌 팀원이라고 지칭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할 일이 많다. 스마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그리고 사회에서는 어떤 인물이 되는지 추적 관찰을 해보고 싶고, 더 나아가 중앙교육연수원이나 교육부로 가서 현장 선생님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에듀테크가 보다 쉽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은 바람도 있다. “스마트 교육은 특정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사회에서는 반드시 써야 할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 교육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날로그의 중요성 역시 그에 못지않고, 적절한 융합이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신민철 교사는 수많은 교육 사례를 만들고 남김으로써 우리나라의 미래를 교육으로 바꾸고자 하는 혁신가이자 현장의 선구자였다. ㉠

‘The-K 인터뷰 2’는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남들과 다른 혁신적인 생각과 활동으로 교육 현장을 풍성하게 가꾸어 가는 독자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혹은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이 지면에 담아, 다양한 교육 혁신 현장을 소개하여 미래세대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는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로 연락 바랍니다.





사법부의 전설이 된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의에 빠져간다고 할지라도, 우리들 법관만은 최후까지 정의를 사수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을 정의에 입각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법관으로서는 타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항일 투쟁부터 해방 후까지 굵직한 삶을 살아 ‘법의 거인’으로 불린 가인(街人, 거리의 사람) 김병로 선생은 예비 법조인인 우리나라 로스쿨 준비생, 졸업생들에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로 더욱 잘 알려져 있다. 독립운동가이자 대한민국 제1대 대법원장이며 일제강점기에 이인, 허헌 선생과 더불어 3대 인권 변호사로 유명한 김병로 선생을 소개한다.

글. 정상규(『잊혀진 영웅들, 독립운동가의 저자』)

*정상규 작가는 지난 6년간 역사에 가려지고 숨겨진 위인들을 발굴하여 다양한 역사 콘텐츠로 알려왔다. 최근까지 514명의 독립운동가 후손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들의 보건 및 복지문제를 도왔으며, 오랜 시간 미 서훈(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로의 등급에 따라 훈장을 받지 못한)된 유공자를 돕는 일을 맡아왔다.

2019년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2020년은 6·25가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과서에 없는 역사 이야기」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숨겨진 영웅들의 이야기를 소개하여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고자 마련한 코너입니다.



1948년 8월 초대 대법원장 취임직후 집무실에서의 김병로 선생

민족 독립을 위해 ‘단결과 협동’을 외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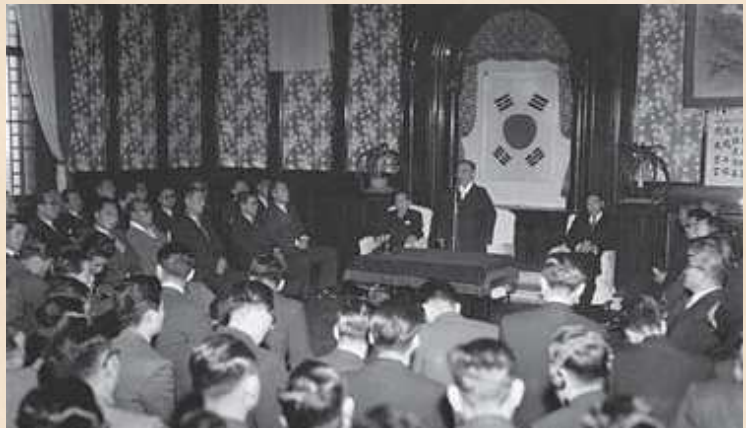
전북 순창에서 태어나 8세에 사서삼경을 뗐을 정도로 수재였던 김병로. 힘든 유학 생활을 거쳐 변호사가 된 그는 강직하고 곧은 성품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농민, 노동자들을 변호하며 법정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다. 광복 이후에도 좌우를 포용하고 독재정치를 비판하면서, 할 말은 하는 모범을 보여주었다.

김병로는 우선 민족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법조인 신분으로서 당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두 진영으로 나뉘어 있던 세력들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이를 위해 1927년에 창립된 좌우합작 민족운동단체인 신간회에 가입했고,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나자 광주를 찾아 진상을 조사하고 일제의 부당한 처사에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듬해에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맡아서 신간회 ‘해소론(解消論, 신간회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으로 젊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이 대두되자 이에 반대하며 민족협동전선을 유지하려 했으나 결국 신간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김병로는 한때 사회주의 조직인 북풍회(北風會)에도 관여하는 등 좌·우의 이념에 구애되지 않고 민족의 독립을 위한 단결과 협동을 호소했다. 이처럼 민족을 위해 여러 방면에서 활동한 김병로가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른다.



1953년 12월 12일 전국사법감독관회의(현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예방했다.



1957년 대법원장 퇴임식

열정으로 펼친 건국 운동 활동



김병로(金炳魯) 선생
(1887.12.15 ~ 1964.1.13.)

- 독립운동가이자 인권변호사
- 1919년 변호사 개업 및 독립운동가 무료 변론 시작
- 1927년 좌우합작 신간회 활동 시작
- 1948년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역임
- 1952년 부산 정치파동으로 인해 이승만과 대립
- 1953년 대한민국 제2대 대법원장 역임
-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1929년 김병로는 다양한 사건의 변호를 맡으며 연단에 자주 섰다. 특히 신간회 활동으로 그가 연사로 나선 집회가 당국으로부터 금지되고, 신간회 간부들과 함께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1931년에는 6개월 동안 변호사 정직처분을 받기도 했다. 해방이 되자 김병로는 건국 운동의 일선에 나섰다.

김병로는 법조인이자 정치인으로서 건국 운동에 투신했다. 여운형(呂運亨,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 겸 저술가, 1945년 8월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9월부터 1946년에는 2월까지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을 지냄)의 건국 준비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건국준비위원회를 방문하여 좌우합작을 제의하기도 했고, 아놀드 미군정장관이 건국준비위원회를 매도하자 이를 비판하는 논평을 내는 등 좌우 세력을 모두 포용하는 건국 운동을 벌였다.

1946년에는 서울에서 신탁통치(국제 연합으로부터 신탁을 위임받은 나라가 일정한 지역을 통치하는 일)를 반대하는 반탁운동을 벌이다 학생들이 체포되자 김병로는 학생들을 변호했다. 또한 1946년에는 비상국민회의 임시의장, 비상국민회의 법제상임위원장, 남조선 대한국민대표 민주의원 산하경제전문위원회 위원, 민족통일총본부 간부, 1947년에는 도산기념사업회 발기인, 민족자주연맹 결성 준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며 대한민국의 정부 각 요직에서 활동했다.



1957년
이승만 대통령(왼쪽)과
김병로 선생

친일과 척결에 힘쓴 사법부의 첫 수장

김병로는 1946년 미군정청 사법부 법전기초위원회 위원, 미군정청 사법부장, 1947년 사법부 내 6인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사법제도의 기초를 닦았다.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실력과 성품이 출중한 그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첫 수장이 된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1948년 8월 5일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에 임명되어 국회의 인준을 받았고, 이 밖에도 법전편찬위원회 위원장, 법조협회 회장을 맡아 사법부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하지만 김병로는 친일과 처벌을 둘러싸고 이승만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재판관장을 맡아 민족정기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김병로는 반민족행위자들의 처벌이 민족적 과제임을 천명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다. 친일과 처벌에 미온적인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법 개정을 요청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전쟁 도중 부인(연일정 씨)을 잃었다.

대통령 앞에서도 서슴없던 굳은 성품

그는 특히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으킨 부산 정치파동에 반발했는데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을 비난하자 시대 분위기 속에서도 굳은 심지를 드러내며 “억울하면 절차를 밟아 항소하라”라고 받아친 것은 오늘날까지도 사법부의 전설적인 명언으로 꼽힌다. 그가 초대 대법원장으로서 소장 판사들을 보호한 덕에 사법부는 비교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후임들은 대부분 친일 판사들이 등용되었다. 사법부가 독재정권에 아부하게 된 탓에 진보당 사건, 사법 파동, 10월 유신을 거치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크게 훼손되고 말았다.

1957년 퇴임사에서도 “법관은 최후까지 오직 ‘정의의 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 김병로. 그는 우리나라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의 기틀을 다지며 퇴임 이후에도 재야에서 민주화와 사법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다. 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 ⑥

미래 기술은 미래 학습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전통적인 학교 체제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테크놀로지 기반의 새로운 교육 모델인 '교육기술(Education Technology)', 즉 에듀테크(EduTech)가 확산 단계에 접어들었다. 5G 초연결시대에 인공지능(AI), 증강/가상/혼합현실(AR/VR/MR), 로봇공학, 소프트웨어, 드론 등과 같은 기술은 이미 교육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으로 개념을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교육 분야에 이들 기술이 모두 도입된다면 그 잠재력이 엄청날 텐데, 그렇다면 미래 기술은 미래 학습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글. 김들폴(IT NEWS 대표,
KIST융합대학원/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훌륭한 학습도구로 자리하는 미래 기술

현재진행형 기술 중 간과해서는 안 될 주요 포인트와 곧 다가올 3년 또는 5년 뒤 미래 기술은 크게 ‘증강/가상/혼합현실(AR/VR/MR) 체험학습’, ‘인공지능’, ‘3D 프린팅/드론/로봇’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증강/가상/혼합현실 체험학습’을 살펴보겠다. 2015년에 출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3차원 ‘홀로렌즈(HoloLens)’는 현존하는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과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을 하나로 묶어 시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극강의 ‘혼합현실(MR, Mixed Reality)’ 기기다. 이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와 협력해 화성의 가상 입체 탐험을 하는 ‘사이드킥(Sideki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상현실은 오직 시간만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혼합현실에 포함되는 증강현실은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어, 학습자 간 협력 모델에 있어 매우 뛰어난 기술적 장점이 있다. 즉, 과거 시간 여행만 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 공간으로 이동까지 할 것인가의 문제다. 따라서 혼합현실에 포함되는 증강현실은 교육 현장에서 매우 핵심적인 요소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일반화되면서 학습과정 및 지식 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 맞춤형으로 적극 개입한다. 또한, 인공지능은 교수자에게 학습자의 교육에 대한 참여도 및 학습상황 등을 알려주어서 어떤 시점에 어떤 내용으로 학습자를 지원해줄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습모형 기술 중 ‘액티브 러닝 포럼(Active Learning Forum) 음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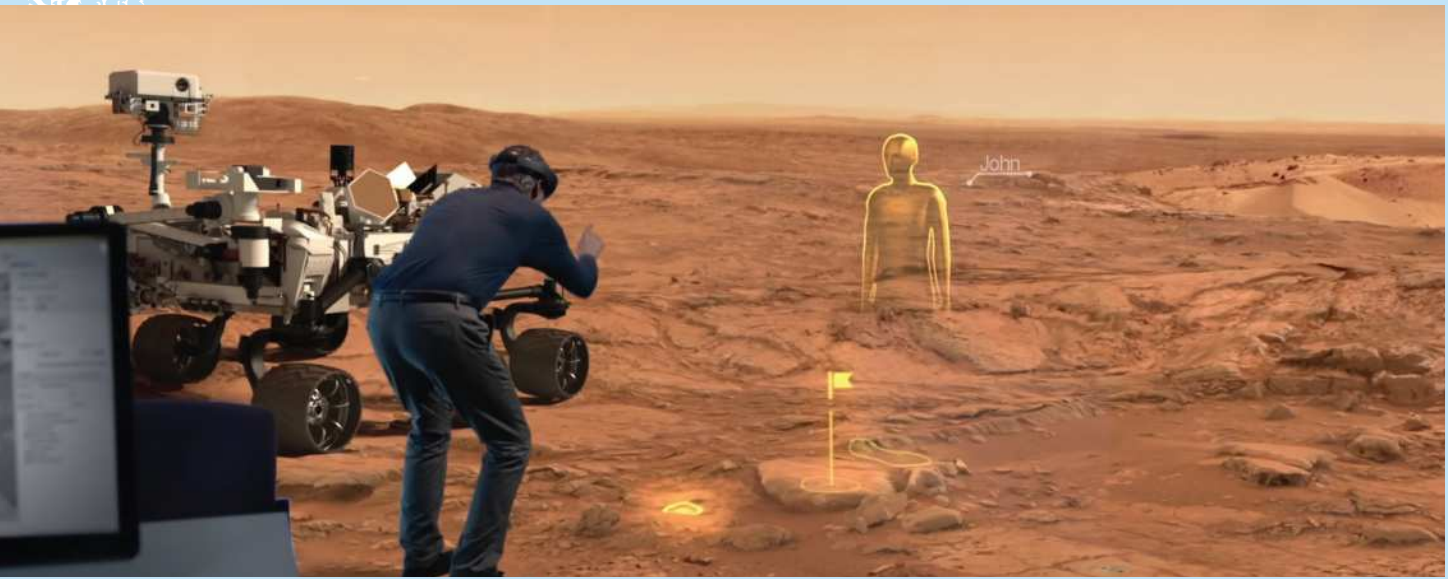


평창동계올림픽 오륜기는 드론 1,218대를 1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3D로 모델링했다. [출처: Intel]

식 시스템 및 영상분석 시스템’은 화상 토론 중 발언이나 시선, 표정 등을 분석해 곧바로 교수자에게 알려주어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토론을 진행케 한다. 또 애플이 인수한 표정 인식 기술개발 업체 이모션트(Emotient)의 ‘표정 분석 기술’은 교실 안의 학생 최대 100명의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정을 읽어낸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과 자동 통·번역 기술은 웬만한 수준을 넘어섰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해외 자료를 검색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따른 교수자의 학습 준비 및 학습 진행 등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3D 프린팅도 이미 학교 현장에 많이 구비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3D 프린팅을 통해 창의적 창작 욕구를 실현할 수 있다. 이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즐거운 과정임에 틀림없다. 현재 과학, 미술, 수학 등에서 3D 프린팅 적용이 가능한 단원을 추출하고 수업에 직접 적용하는 시도는 매우 바람직하다. 드론과 로봇 역시 상상하고 디자인한 것을 현실로 구현하는 훌륭한 학습 도구로 자리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3차원 '홀로렌즈(HoloLens)'로 미 항공우주국 나사(NASA)와 협력해 화성의 가상 입체 탐험을 하는 '사이드kick(Sidekick)'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 Microsoft]

오감 컴퓨팅 도구는
컴퓨터가
사람의 감각을 모방해
독특한 방식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오감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다가올 에듀테크, '컴퓨팅'과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3~5년 뒤 스스로 학습하는 신개념 컴퓨터인 오감 컴퓨팅 학습도구를 통해 디지털 트윈으로 실제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에듀테크가 다가올 것이다. 즉, 컴퓨터가 사람의 감각을 모방해 독특한 방식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보고, 들을 수 있는 인간의 오감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 기술은 다음과 같다.

촉각(Touch) 인간의 오감 중에서 촉각은 가장 복잡한 감각이다. 촉각은 다른 감각들과는 달리 온몸에 존재하고 그 촉각으로 얻는 정보는 인간의 인지와 행동에 깊이 연계되어 있어 오감학습에서 가장 중요하다. 현재 페이스북, 디즈니연구소, 스탠퍼드대학, 텐바스, 액손 등이 활발하게 연구 중이다.

시각(Sight)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Visible Light)만 감지하지만, 향후 컴퓨터는 라디오(Radio), 극초단파(Microwave), 적외선(IR), 극자외선(UV), X-선,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까지 감지하고,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시각정보(이미지), 예술(artwork) 정보, X-선 이미지, MRI 이미지를 분석해 인간에게 제공할 것이다.

청각(Hearing) 인간의 귀는 16Hz~20kHz의 소리만 감지한다. 하지만 향후 컴퓨터는 20kHz 이상의 초음파를 모두 감지해, 인간이 감지할 수 없는 소리나 진동까지 감지할 것이다. 컴퓨터가 자연의 소리를 패턴별로 분류하고 예측해 학습자 분석에 기초한 소리를 인지하고 솔루션을 제시할 것이다. 한편, 최근 미국 MIT대학과 이스라엘 텔아비브대학 연구진들은 머신 러닝으로 쥐와 박쥐들의 대화를 통역했다.



애플이 인수한 얼굴표정 인식 기술개발 업체 이모션트(Emotient)의 '표정분석 기술'을 통해 교실 안의 학생 최대 100명까지 얼굴을 정확히 인식하고 감정을 읽어 내고 있다. [출처: Emotient]

● 미래 교실에서는 미래 기술을 활용해 이론적인 개념과 실용적인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영화 엑스맨(X-Man)에서 BCI 기술로 제어하는 장면. [출처: X-Man 스틸 컷]

미각(Taste) 디지털 미각세포를 통해 실제와 같은 맛을 체험할 수 있다. 음식 재료들을 분자 수준으로 쪼갬 다음 사람이 선호하는 맛과 냄새를 삼리학적 요소와 결합한 시스템으로 새로운 맛까지도 창조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소금을 넣지 않아도 짭맛을 낼 수 있는 '전기 포크(Electric Fork)'를 개발했고,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는 단맛, 짭맛, 신맛을 흉내 낼 수 있는 디지털 미각 자극제인 '디지털 사탕'을 개발했다.

후각(Smell) 인간의 후각은 1만 개의 냄새 분자를 감지하지만, 컴퓨터는 10만 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 일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자코(Electric Nose)를 개발 중이다.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Brain - Computer Interface) 인간의 두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해 뇌파를 통해 컴퓨터를 제어하는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일종의 텔레파시 기술로써 생각만으로 기계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는 미래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장애 학생 학습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이 기술은 페이스북, 뉴럴링크, 삼성전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연구 중으로 3~5년 안에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미래 교실에서는 미래 기술을 활용해 이론적인 개념과 실용적인 지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율적인 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즉,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미래 기술을 통해 학생들을 교실에 더 이상 묶어 놓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㉔



학습 시간은 변수, 학습 깊이는 상수! 미국의 ‘칸 랩 스쿨’



KHAN LAB SCHOOL

미국에 있는 ‘칸 랩 스쿨(Khan Lab School)’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길을 찾아 항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 공동체다. 학습 시간은 변수, 학습의 깊이는 상수로 삼는 학교. 즉, 내용을 일정 깊이만큼 학습할 때까지 학생에게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학교가 바로 칸 랩 스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학교에서는 그 반대로 행한다.

글. 김재춘(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실리콘 밸리에서 교육 혁신을 추구하는 ‘칸 랩 스쿨’

전 세계 기술 혁신의 상징인 실리콘 밸리. 애플,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등 하이테크 혁신 기업들의 본거지이자 하이테크 경제로 떠오르는 부유한 동네. 왼쪽에는 세계 명문 사립대학인 스탠퍼드가 있고, 오른쪽에는 세계 명문 공립대학인 버클리 대학이 있는 곳, 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만 남부 지역이 실리콘 밸리다.

실리콘 밸리의 중앙에 위치한 도시, 구글 본사가 있는 도시 마운틴 뷰(Mountain View)에 ‘칸 랩 스쿨’이 있다. 미국의 온라인 교육가이자 칸 아카데미로 잘 알려진 ‘살만 칸(Salman Khan)*’이 교육의 혁신을 표방하면서 설립한 학교다. 미국의 전형적인 사립학교로서 5~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K-12(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교육기간을 말함) 학교’로, 학생 수가 140여 명인 소규모 학교다. 그렇다면 왜 살만 칸은 칸 랩 스쿨을 세우고자 했을까?

칸은 오프라인 학교 설립을 통해 이른바 ‘표준화’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 칸은 ‘망가진 교육 모델(The Broken Model)’이라 명명한 기존 학교의 비교육적 관행을 혁신하기 원했다. 비교육적 관행이란, 교사가 주로 말하고 학생은 듣기만 하는 수업, 수업에서 학생은 교과서 진도를 벗어난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 종이 올리면 이전 수업은 중단하고 다음 수업을 해야만 하는 상황, 총체성을 지니는 인간의 활동과 경험을 교과·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쪼개는 인위성, 해류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할 개념들을 학습단위이라는 장벽 안에 가둬놓은 것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완전 학습과 개별 학습 실천

기초가 부실한 건물에 위층을 계속 올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기본을 다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진도를 맞춘다는 이유로 다음 단계의 학습으로 나아가면 부실이 커져 이후에는 제대로 학습할 수 없게 된다. 각 학생이 해당 단계의

*살만 칸(Salman Khan, 1976년 10월 11일~)은 미국의 온라인 교육가이다. 수학과 과학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역사와 예술까지 다양한 과목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동영상 4,000여편 가까이 제작해 그의 공식 채널인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에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내용을 완전하게 학습한 후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런 ‘완전학습 기반(Mastery-Based)’ 교육을 위해서는 각 학생의 학습 속도에 맞춘 ‘학생 중심(Student-Centered)’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칸 랩 스쿨은 완전학습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이 학교가 강조하는 학생 중심 교육은 완전학습을 위한 방안이다. 영어, 수학, 과학 등 핵심 교과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속도에 따른 학습을 한다. 이를 위해서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스마트 패드를 활용한다. 학교에서 학생은 스스로 설정한 자신의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속도에 맞춰 공부하는 시간, 즉 목표 시간(Goal Time)을 가장 많이 갖는다. ㉔

칸 랩 스쿨의 특징

나이가 아닌, 학습 역량에 따른 집단 편성 완전학습에서 학생의 나이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다. 학생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 즉 어떤 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따라서 학년 대신 ‘독립성 수준(Independence Level)’에 따른 집단 편성이 이루어진다. 칸 랩 스쿨에는 6개의 수준이 있는데, 유초등 과정이 1~4수준, 중학교 과정이 5수준, 고등학교 과정이 6수준이다. 학생이 수준 진급을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내용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실생활 적용에 초점을 맞춘 교육 칸 랩 스쿨은 ‘자기 속도 학습(Self-Paced Learning)’이라 불리는 개별 학습 외에도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 PBL)’ 등 실생활 적용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PBL을 통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프로젝트 학습에 학생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생이 주인 의식을 갖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지역사회학습의 일환으로 지역인사 초청 특강, 현장 학습, 인턴과 도제학습(일학습병행제, 기업이 취업 희망자를 학습근로자로 채용한 뒤, 이론과 실무를 함께 교육하는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등의 프로그램도 적극 활용한다.

일대일로 이뤄지는 성장지도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씩(약 30분) 교사와 일대일 상담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습 목표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전략, 학습 습관 등 학생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지도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충분히 놀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저학년 교실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큰 놀이터

충 주 양 성 초 등 학 교

“엄마,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선생님, 학교에 더 있다가 집에 가면 안 돼요?”
집보다 학교가 더 좋다는, 특별한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가 있다. 학생들이 하
교 시간을 늦춰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졸업을 늦출 수는 없냐고 묻는 학교, 공
간 혁신이 만들어낸 유쾌한 변화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양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인 실내 종합 놀이공간 양성마루

●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꿈이 자란다.
양성초 사람들은 먼저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실을
바꿔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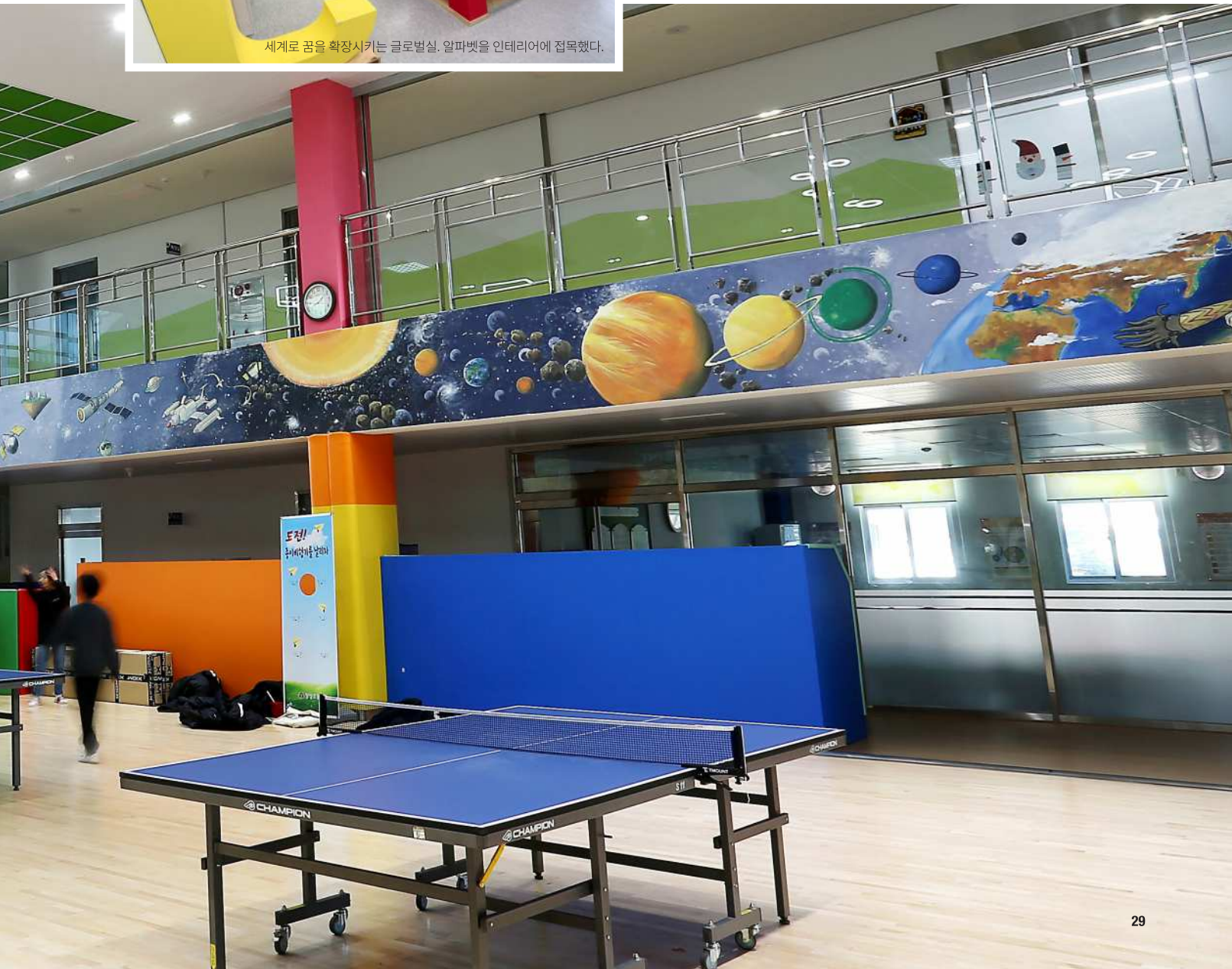


세계로 꿈을 확장시키는 글로벌실. 알파벳을 인테리어에 접목했다.

통폐합의 빈자리를 메꾼 공간 혁신

충북 충주시 양성면에 자리한 양성초등학교. 올해로 92회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 깊은 학교다. 오랜 시간 같은 자리에 서서 학교는 지역의 크고 작은 변화를 지켜봐 왔다. 인구 감소로 주변 초등학교들이 차례로 문을 닫는 모습도 목격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면 내 두 개 초등학교 중 하나였던 강천초등학교마저 양성초등학교에 통폐합되면서, 양성초등학교는 양성면 유일의 초등학교로 남게 되었다.

학교가 사라진다는 상실감도 잠시, 강천초등학교와 양성초등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은 새로운 숙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양성초등학교의 공간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만한 학교를 만들어야 했다.



권혁화 교장은 “역사가 오래된 학교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보수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어 무작정 손을 댈 수 없었고, 학생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경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최고의 공간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학부모통폐합추진단과 시·도 교육청 그리고 교사들이 머리를 맞댔죠”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학교를 리모델링하며 많은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답은 한 가지로 좁혀졌다.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며, 학교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교실”이라는 것. 그리고 무리한 공간 확장이나 특별실 마련보다는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교실에 집중하기로 했다.

교실의 틀을 완전히 깨다

“양성초등학교의 가장 큰 자랑은 다른 아닌 교실이에요. 안방 같고, 카페 같은 교실이에요.”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꿈이 자란다. 양성초 사람들은 먼저 경직되고 획일화된 교실을 바꿔보기로 했다. 안방처럼 편안하고, 카페처럼 어울려 소통하는 곳. 공부만큼 관계도 중요하기에, 교실 안에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공간을 과감히 배치했다. 대신 놀면서 배우는 것이 많은 1·2학년 교실은 학습공간과 놀이 공간을 2대 8 비율로, 3·4학년은 5대 5, 5·6학년은 8대 2 비율로 학년별 비중을 달리했다. 1·2학년 교실에는 교실 안에 미끄럼틀을 놓는 등 학년별 눈



1층 양성마루로 자연광을 이어주는 옥상정원



학교 안에는 아이들이 실내화를 벗고 올라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국소 조명을 활용해 카페와 같은 이미지를 연출했다.

높이에 맞는 학습 공간과 휴게 공간 인테리어도 서로 다르게 뒀다. 또 학년별로 교실 전체의 색상과 조명, 구조 등 인테리어에 차별화를 두어 새 학년에 올라갈 때마다 새 교실에서 공부한다는 기쁨을 만끽하게끔 했다.

“출입문 색깔과 유리창 모양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층마다 인테리어를 다 다르게 했어요. 교실에서 쓰는 책상 색깔도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색으로 각자 골라서 쓰게 했죠. 세상에 똑같은 아이가 없듯이 공간도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창의력도 쑥쑥 자랄 것이고요.”

공간의 쓰임도 더욱 효율적으로 바꿨다. 먼저 교실 안에 칠판을 앞뒤로 두어 어느 방향에서나 자유롭게 수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교실 모퉁이에는 세면대를 놓고 수납공간을 최



외벽에도 밝은 색을 칠해 학교에 생기를 더한다.

●
“세상에
똑같은 아이가 없듯이
공간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창의력도
쑥쑥 자랄 것이고요.”



전통의 느낌을 살린 예절실

대han으로 마련해 학생들이 교실 안에만 있어도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그리고 교실마다 중문을 설치해 필요 시 문을 개방하여 공간을 넓게 쓰도록 했다. 교실이 넓으면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참여 수업을 하기에는 좋지만, 여름과 겨울철 냉난방비 부담이 있다는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3층 복도와 옥상정원의 경계에도 중문을 설치하여 여름에는 중문을 열고 교실 안에서 싱그러운 바람을 맞을 수 있게 했다.

음악실 안에 개인 피아노 레슨실을 만들고, 고품격 영어 교육을 위한 글로벌실을 두는 등 특별실 개선도 놓치지 않았다. 또 복도에는 보드를 부착하고 테이블을 두어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건의사항을 적거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학교

학교가 바뀌자 학생들도 바뀌었다. 학교가 통폐합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걱정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이제 아무런 걱정 없이 학교로 향하게 됐다. 또 공간의 변화는 학생들이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닌다”라는 자부심을 품게 했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학교를 소중히 여길 방법을 고민하고,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실천한다. 도서관 내 좌식 마루에 신발을 신고 오르지 못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공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도 빼놓지 않았다.

“어느 날 학생 한 명이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저는 이 학교에 와서 많이 자란 것 같아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제가 고마웠어요.”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학교는 몸소 보여주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큰 꿈을 갖게 했다. 또 스마트폰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던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친구와 어울려 노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양성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학교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놀이터로 기억할 것이다. ㉞



양성초등학교 교실 내부. 중문과 누다락을 두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자연친화, 학생친화공간으로 재탄생한 도서관



복도 한편에 마련된 오픈형 공간으로, 학생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꿈을 키운다.



오늘, 생각하기

[+25] 그 쌤의 이중생활

『그 쌤의 이중생활』은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체육 수업
활성화를 꿈꾸며 '열정기백쌤' 채널을 운영하는
성기백 교사의 에너지 가득한 일상을 엿보세요. ▶



Teacher

열정 있는 교사들의 맞춤 채널 ‘열정기백쌤’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성기백 교사

학교 안에서 가장 활동적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을 꼽으라면 단연 운동장일 것이다. 학생들은 체육이 얼마나 좋은지 표정과 몸짓으로 말한다. 그러면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성기백 교사는 열정적인 수업으로 화답한다. 구독자 9천여 명, 누적 조회 수 140만 건에 이르는 인기 유튜버 ‘열정기백쌤’의 열정은 체육 수업 시간에 가장 뜨겁게 폭발한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



Pioneer

노력하는 교사의 체육 시간은 다르다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새로운 문물을 배워갔으면 합니다. 좋은 교사는 아니지만 노력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서울동구로초등학교 성기백 교사의 블로그 ‘기백쌤 교육 공간 & 기백만 체육 교실’ 소개 글이다. 12년간의 교직 생활을 소개하는 글이기도 할 것이다. 그가 ‘노력하는 교사’가 된 이유는 사명감 때문이다.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는 너무도 행복한 학생이었다. 좋은 교사를 만나 행복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자신도 학생들에게 그러한 학창 시절을 대물려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사명처럼 느껴졌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그의 시선은 학생들이 가장 크게 웃는 공간, 운동장으로 옮겨졌다.

“학생들은 체육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은 어찌면 학창 시절 체육을 가장 즐길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학생들 모두가 행복한 체육 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명 반 안에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교실 안이 좋은 학생과 밖이 좋은 학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성기백 교사는 운동 능력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체육 수업법과 교실에서 할 수 있는 체육 수업법을 연구했다.

●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다’,
 ‘고맙다’라는
 피드백에서 힘을,
 다른 교사에게서 자극을,
 학생들에게서 행복을 얻으며
 성기백 교사도 매일 성장한다.



Pioneer



그리고 마침내 방법을 찾았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이루어진 체육 수업은 종목 중심의 승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특정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주목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경쟁에서 밀려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요인이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놀이 학습법을 연구했습니다.”

학기 초 체육 수업은 ‘운’이 들어간 놀이를 주로 했다. 주사위 던지기, 가위바위보 등 ‘운’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운동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도 얼마든지 놀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협동심을 요구하는 놀이를 했다. 팀 안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쳐 놀이를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말이다. 그리고 나면 학생들은 신체 활동에 익숙해지고 기본 운동 능력을 갖추게 되어 어떤 놀이를 하더라도 자신 있게 수업에 참여했다.

체육 수업 활성화를 위한 채널 ‘열정기백쌤’

노하우가 생겼으니 이제 나눌 차례였다. 당시만 해도 놀이 학습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으니, 그가 개척자인 셈이다. 2012년 블로그를 개설한 그는 수업법을 정리해 올리기 시작했다. 2015년부터는 유튜브와 초등교사들의 정보 공유 플랫폼인 인디스쿨에도 수업법을 공유했다. 반응은 뜨거웠고, 학습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교사들도 점점 늘어났다. 더 많은 콘텐츠가 필요했다.

“초반에는 콘텐츠 발굴에 대한 스트레스도 있었어요. 미국, 캐나다, 남미 등 다른 나라의 체육 활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우리 사정에 맞게 개발하기도 하고, 인디스쿨에서 다른 교사들이 올린 글에서도 아이디어를 얻었죠. 그러다 각 놀이의 중심이 되는 핵심을 파악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놀이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터득한 후로는 개발이 쉬워졌습니다.”

새로운 놀이를 개발한 후에는 학생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학생들에게 수정해야 할 점을 들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이 성장했고, 직접 새로운 놀이를 개발하기도 했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은 다시 그의 연구와 열정에 원동력이 됐다. 학교 체육 시간에 할 수 있는 체육 활동과 교실 놀이, 유아 체육 방법 등 2015년부터 주 1~2회 꼬박꼬박 유튜브 ‘열정기백쌤’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이 벌써 200개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노력하는 교사’가 되겠다는 그의 말을 증명한다. 그의 진심에 응답하듯 2020년 1월 기준 구독자는 9천여 명에 달하고, 누적 조회 수는 140만 건이 넘었다. 블로그 이웃 수도 5천여 명에 달한다.

체육을 통해 학생들은 더 크게 자란다

“학생들을 체육을 좋아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구분할 수 있듯 교사도 체육 시간이 좋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사가 체육을 기피하게 되면, 학생들은 더는 체육을 즐길 수 없게 됩니다. 미세먼지에 놀 자리를 빼앗기고, 스마트폰에 친구를 빼앗긴 학생들이 체육 시간만이라도 가능한 한 많이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학교에서의 체육은 교과로서의 체육이 아닌, 교육론의 핵심적인 세 가지 체계인 지덕체(智德體)의 체육”이라고 강조한다. 교사인 동시에 세 아이의 아빠로서 보더라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체육은 너무나 중요하다. 신체 움직임에 따라 아이들의 뇌도 발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훗날 자신의 자녀들이 자라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아빠가 만든 놀이법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

“큰아이가 작년에 초등학생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학교에서 ‘아빠가 만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수업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짜릿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책을 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서울동구로초등학교 교사, 티쳐런(Teacher Learn) 체육 교육 공동체 활동, 미래교실네트워크의 주빈 교사, 애플 우수 교사 제도 ADE(Apple Distinguished Educator) 대표 교사, 세 아이의 아빠. 이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서 자극을 받다 보니 열정이 식을 틈이 없다. ‘선생님 덕분에 행복하다’, ‘고맙다’라는 피드백에서 힘을, 다른 교사에게서 자극을, 학생들에게서 행복을 얻으며 성기백 교사도 매일 성장한다. 덕분에 ‘열정기백쌤’이라는 수식어는 아주 오래도록 바뀌지 않을 것 같다. **Ⓚ**

‘그 쌤의 이중생활’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25~35세 독자 여러분 중 열정 넘치는 이중생활로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선생님이 아니어도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혹은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The-K 매거진」이 지면에 담아, 많은 교직원분들과 공유하여 학교와 교실의 담장을 넘는 빛나는 꿈과 열정이 더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로 연락 바랍니다.

&

Teacher

부유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란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생활 트렌드다. 이러한 흐름은 날로 복잡해지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삶의 다운사이징을 추구하는 이들을 만들어 냈다.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방식에 자족하는 사람, 필요치 않은 물건과 일 등을 줄여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 ‘미니멀리스트’가 늘고 있다.

글. 강일수(두디스코칭 대표)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에서 동대문으로 넘어가는 첫 동네. 한양도성의 고즈넉한 풍경과 숲이 어우러진 동네에 ‘세로로(SERORO)’라는 이름의 흰색 건물이 들어섰다. 33㎡(10평)에 불과한 땅에 5개 층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협소주택이다. 집주인은 서울성곽을 따라 낙산공원을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야경이 멋진 핫플레이스 데이트코스가 통근길인 셈이다.

최근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투리땅을 활용한 개성 있는 작은 집짓기가 트렌드로 떠올랐다. 넷플릭스의 리얼리티쇼 ‘Tiny House Nation(도전! 협소주택)’이 큰 인기를 끌면서 미니멀한 삶을 꿈꾸는 협소주택 열풍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작은 집의 혁명’

일본에서 최초로 초소형 주택인 협소주택이 등장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투리땅을 활용해 지은 집 정도로 인식되었지만, 차츰 인기를 끌면서 도심의 부지가 협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밀집지의 틈새에 있는 땅에서 열풍처럼 협소주택 건축 붐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7년에만 협소주택 판매량이 전년대비 67%나 증가했다. 협소주택을 가진 이들의 68%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갖고 있지 않으며, 협소주택에 사는 사람의 90%가 평균적인 미국인들보다 더 적은 신용카드 빚을 갖고 있다고 한다.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성향이 반영되어 그 인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홍콩에서도 협소주택 ‘오포드 튜브 하우스(OPod Tube House)’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잉생산으로 빚터에 방치된 대형 콘크리트 수도관을 활용해 주거공간으로 만든 이 집의 내부 면적은 9.29㎡(약 2.8평)로 1~2인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크기다. 모델이 공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스칸디나비아식 원목 바닥으로 꾸며진 내부는 안락하며 다양한 선반들을 설치해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채 건설비용은 약 1,700만 원인데, 비슷한 부동산 시세의 20%인 월 47만 원에 임대한다.

최소한의 소유, 단순한 공간을 추구하다

평균적으로 우리의 증조부모 세대는 57가지, 조부모 세대

는 200가지, 부모 세대는 600가지 그리고 현대의 우리는 약 10,000가지의 물건으로 생활한다고 한다. 다양한 상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광고·홍보 역시 넘쳐나는 잉여시대에서 우리는 소비자로서 물건에 대한 소유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게 현실이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쓰지 않는 물건들을 가득 안고 생활하고 있다.

미니멀 라이프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옷이나 책, 가구를 얼마나 많이 버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버릴 것인가와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인가를 배우는 과정이다. 미니멀 라이프는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물건보다 자기 자신과 삶에 집중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소유, 단순한 공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치우면 새로운 생각이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생겨, 삶을 더 즐길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의 특징은 활기차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더 적은 것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한 것일까?’, ‘다르게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은 세계적으로 다양한 삶에 대한 방식을 만들어냈다. 덴마크의 ‘휘게(덴마크 사람들이 지향하는 여유롭고 소박한 삶의 방식)’나 일본의 ‘미니멀리즘’은 이런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주목받는 삶의 트렌드였다. 미니멀 라이프는 단순히 외형적 모습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검소한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사고방식 등 모든 것에서 거품을 빼고, 삶의 본질에 충실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것으로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했다. 행복은 깊이 느끼고, 단순하게 즐기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삶에 도전하고,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는 능력에서 나온다.

얼마 전 8천100억 원을 기부한 중국 영화배우 주윤발은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소박한 생활입니다. 매일 세끼 밥을 먹고 잘 수 있는 작은 침대 하나. 과하지 않잖아요. 필요한 건 그게 다 아닌가요?” ❷



일반고 출신으로 천 명당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 수를 보면, 서울 서초구가 28.3 명으로 성동구의 7.3명에 비해 3배 이상 많다. 대학입시에서 '지역 효과'가 부동산 시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다. 교육부가 2016 ~ 2019학년도까지 상위권 13개 대학의 고교유형별 합격률을 확인한 결과,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과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학교 효과' 또한 분명했다. 또한 가정의 소득 수준으로 나타나는 '부모 효과'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 '부모 효과'는 주로 '사교육 효과'를 통해 자식에게 대물림된다.

글. 박재원(사람과교육연구소
부모연구소장)

학부모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 수시와 정시에 대한 착각을 버려라

여러 입시 이야기와 부모의 마음

자신의 무능력 때문에 자식이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많은 부모는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 그런데 정말 부모의 경제력과 정보력이 자녀의 대학입시 결과를 좌우하는 것일까?

학력 자본의 선취 경쟁에서 사교육의 과열 현상은 부모의 계급적 욕구가 빚어낸 말단의 표면적 현상일 뿐 아니라, 실제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도 결코 결정적인 요인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고학력 중산층 부모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사교육에 몰입하는지, 그리고 왜 사교육이 학업 성적을 좌우한다고 착각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왜 잘사는 집 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하나?」 참고

자녀의 학업 성취도에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결정적이지 않으며 부모의 계급적 욕구가 낳은 착각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기저기서 가장 중요한 '학생 효과'를 애써 외면하고 '지역 효과', '학교 효과'만을 거론하면 학부모들은 불안해진다. 결국 '사교육 효과'에 기대를 걸지 않으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와 상관없이 스스로 '사교육 효과'를 믿어야 한다. 착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수시와 정시에 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

가장 심각한 착각은 수시와 정시에 대한 생각이다. 먼저 수시와 정시에 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2002학년에 수시 선발 비율은 28.8%로 시작했지만 2021학년도 기준으로 77%로까지 크게 확대되었다.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수시전형을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최근 서울 주요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발표를 보면 정시 역시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수시와 정시를 모두 준비하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정말 수시와 정시는 모두 놓칠 수 없는 기회일까? 입시 전문가도 학부모도 아닌 실제 입시를 몸



으로 준비해야 하는 당사자인 수험생을 생각하면 답답하다. 입시 설명회를 할 때마다 필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수험생의 입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 수시와 정시 이원화 제도다. 선택하고 집중하라는 취지를 외면하고 오히려 모두 준비함으로써 오히려 입시 부담을 더 져야 한다면 잘못된 것이다.”

청중들의 반응은 표정으로 알 수 있다. 대부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축구와 야구는 같은 운동이지만 종목이 다르다. 수시와 정시도 같은 입시지만 다른 종목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들이 굳게 믿고 있던 신념에 금이 가는, 당혹스러운 표정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해도 잘하기 어려운데 이것저것 다하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미친 짓 아닌가요?” 비로소 고개를 끄덕이는 청중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

안타깝게도 입시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냉정한 승부의 세계다. 입시 준비를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대학은 묻지 않는다. 대학은 오직 자신들이 제시한 선발방식 각각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할 따름이다. 수시 교과전형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된 교과 성적이 핵심이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된 여러 기록을 두루 살펴본다. 정시에는 수능 성적의 차이가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수시에서도 일부 대학은 수능성적을 최저기준으로 활용하지만 정시용 수능과는 분명히 다르다. 정시용 수능을 위해서는 부진한 과목의 성적을 올려야 하지만 수시용 수능은 우수한 과목에 집중해서 등급을 잘 받아야 한다. 공부해야 할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수능이 아닌 것이다.

우선 자신의 노력을 무엇으로 입증하는 것이 유리할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정량평가인 수능이나 내신 성적인지 아니면 정성평가인 ‘학종’인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한다. 그다음에 학교 시험과 국가고사인 수능의 차이를 파악하고 역시 자신에게 적합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

내 아이를 위한 선택과 집중에 총력을

수시 도입 초기의 언론 반응을 확인해보면 대부분 긍정적이었다.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 갈 수 있다’고 말이다. 만약 우리나라에 입시 사교육이 없었다면 수시제도는 본래 취지에 맞게 수험생들의 입시부담을 줄여주는 바람직한 제도로 잘 정착했을 것이다.

최근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구호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가 학생들이 한 가지만을 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입학원서를 내기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입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3) 강태중 외」 참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교육의 시장 논리가 뿌리라고 판단된다. 합격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유혹이 학부모들의 불안심리에 파고들어 결국 대세를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학교 효과’와 ‘지역 효과’는 입시 성공사례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다는 현실 묘사로 적절하다. 그런 현상에 압도되면 ‘부모 효과’와 ‘사교육 효과’를 맹신하게 되고 결국 시장의 논리에 충실한 입시준비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부모의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입시 부담에 찌든 아이들은 이것저것 손만 댈 뿐, 무엇 하나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처지가 된다. 결국 ‘학생 효과’를 믿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내 아이가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는 입시는 따로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수시와 정시를 모두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서로 다른 입시종목이라고 생각해야 최선의 입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㉔





봉주르!
몽마르트

화가 *민정익*!



“아버지가 퇴직 후 프랑스로 그림 그리러 가신다고 한다”고 전했을 때,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그 양반 거기 갈 위인이 못 된다.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러나 어머니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정말 프랑스로 날아갔고, 몽마르트(Montmartre) 언덕의 거리 화가가 되었다. 민병우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몽마르트 파파」 속 주인공인 아버지, 민형식 화가의 인생 2막 이야기다.

글. 이성미 사진. 김도형



퇴직 후? 다 생각이 있지

민형식 화가의 가슴속엔 언제나 프랑스가 있었다. 젊은 시절, 서양화를 전공한 민형식 화가에게는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그림을 그릴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아내의 반대로 기회는 무산됐고, 그는 34년을 평범한 미술 교사로 살아왔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은 분명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가끔 삶이 무료하게 느껴질 때면 그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

시간이 흘러 퇴임을 앞둔 민형식 화가에게 아들이 물었다. “아버지, 퇴임 후에 뭐 하실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다 생각이 있지.” 그 말 한마디가 영화감독인 아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들도 ‘프랑스에 가 내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싶다’던 아버지의 바람을 알고 있었다. 불현듯 아버지를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은 아버지 민형식 화가의 마지막 수업을 촬영하고, 퇴임식에도 찾아갔다. 그러나 퇴임을 하고 바로 프랑스로 날아갈 것만 같았던 아버지는 한참이 지나도록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했다. 밥을 먹고, 낮잠을 자고, 산에 오르며 아버지는 평범한 노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절대 못 간다. 갈 위인이 못 된다.” 민형식 화가를 보면서, 아내인 이운숙 씨는 호언장담했다.

“평생 마음에 담고 산 프랑스인데, 막상 가려니 선뜻 나서질 못했어요. 무엇보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죠.”

결국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나섰다. 지인을 통해 몽마르트에서 그림을 그릴 방법을 찾았고, 아버지에게 귀뜸해주었다. 몽마르트 언덕의 테르트르 광장(Place du Tertre)에서 정식 거리 화가로 활동하기 위해선 파리시청에 미리 허가를 얻어야 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한다는 사실도 일러두었다. 그제야 민형식 화가는 마음을 다잡았고, 프랑스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떠났다. 퇴임 후 해가 바뀐 2017년 12월, 민형식 화가의 프랑스 한 달 살이가 시작됐다. 아들 민병우 감독과 아내 이운숙 씨도 덩달아 비행기에 올랐다.



몽마르트 거리 화가가 되다

프랑스에 도착 후 민형식 화가는 몽마르트 언덕으로 매일 붓과 캔버스를 들고 나갔다. 파리는 추웠고, 날씨가 변덕스러워 급히 짐을 싸야 할 일이 많았다.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고, 음식도 언어도 입에 착 붙진 않았다. 아내의 감시(?)도 뒤따랐다. 매일 손님이 끊이지 않는 인물화 화가와 비교해 풍경화 화가는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민형식 화가는 그저 좋았다. 프랑스 땅에 첫발이 닿았을 때의 희열. 평생 가슴에 박힌 응어리가 풀어질 때의 쾌감. 이 감정만으로 “오길 잘했다”라고 말하기에 충분했다.

게다가 어디든 눈을 돌려도 화폭에 담을만한 풍경이 펼쳐졌다. 높게 솟은 에펠탑,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반짝이는 물랭 루즈(Moulin Rouge), 하늘과 하나의 색으로 맞닿은 니스(Nice)의 바다, 모네를 비롯하여 수많은 예술가가 사랑한 에트레타 절벽(Falaises d'Etretat). 이 모든 것이 그의 예술가적 감성을 뒤흔들었다. 루브르(Louvre) 박물관과 오르세(Orsay) 미술관, 피카소 미술관 등에 들러 걸출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직접 눈으로 감상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면, 무엇이든 그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 붓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낮이든 밤이든 그림을 그렸다. “프랑스까지 왔는데 그림 몇 점 팔아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족의 물음에 “그림에 혼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꿈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좋다”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의 가장 큰 수확을 꼽는다면, 그것은 ‘삶에 대한 열정’이었다.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카메라에 담았다. 찍으면 찍을수록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도 생겼다. 그리고 약 1년간의 편집 과정을 거쳐 아버지의 퇴직 후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몽마르트 파파」가 2020년 1월 9일 정식 개봉했다.

● 영화 「몽마르트 파파」를 보며 관객들은 크게 웃고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해짐을 느낀다. 젊은이들은 살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어머니의 꿈,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숙연해진다. 백발의 관객은 ‘나도 꿈을 이루겠노라’ 결심한다.





꿈꾼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좋다

영화 「몽마르트 파파」를 보며 관객들은 크게 웃고 한편으로는 코끝이 찡해짐을 느낀다. 젊은이들은 살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버지·어머니의 꿈, 그리고 나의 꿈에 대해 생각하며 잠시 숙연해진다. 백발의 관객은 '나도 꿈을 이루겠노라' 결심한다.

영화는 민형식 화가 가족의 삶도 바꾸어 놓았다. 민형식 화가는 프랑스와 한국에서 그린 그림을 모아 난생처음 단독 전시회를 열었고, 시사회에 참여해 관객들과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민병우 감독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가시 돋친 응원을 계속해가고 있다. 가정 안에서 구성원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들은 각자가 얼마나 큰 잠재력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었다.

“프랑스에 다녀오면서 가슴 뛰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살맛이 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들이 참 큰 역할을 해주었어요. 아들도 내 삶을 들여다보며 느낀 것이 있었겠지만, 저 역시 이번 계기로 ‘자식은 부모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크게 와닿게 되었습니다. 관객들도 영화를 보고 나서 느끼는 바가 각자 다르겠지만, 모두 가족의 꿈을 응원하는 응원군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민형식 화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에게 다음 영화를 이야기한다. 쿠바, 아프리카 등 가고 싶은 곳을 상상하고 새로운 꿈을 꾸다. 민형식 화가의 가슴 속에 가장 먼저 자리를 잡은 프랑스는 언제나 불쑥 나와 그가 붓을 들게 할 것이다. “봉쥬르!”라는 힘찬 인사를 건네며. ㉔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인도양의 섬나라, 스리랑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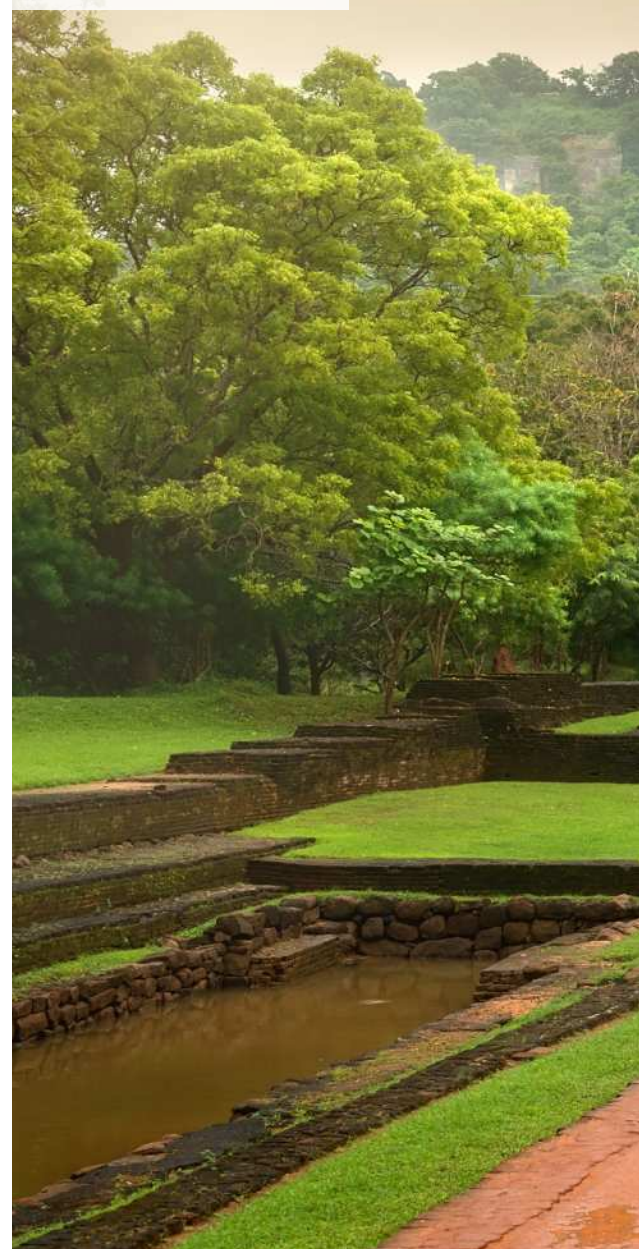
홍차와 불교 유적지로 유명한 나라인 스리랑카는 한때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오랫동안 유럽 몇몇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1972년에 본래의 이름인 ‘스리랑카’를 되찾았다. 스리랑카는 인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다. 얼핏 보기에 섬의 형태가 마치 작은 나뭇잎 또는 눈물방울을 연상케 한다. 그 형태 때문에 혹자는 스리랑카를 가리켜 ‘인도양의 눈물’이라 부르기도 한다. 스리랑카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은 불교 유적이다. 기원전 3세기 무렵에 불교를 받아들인 이후로 일찍이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을 피웠다. 아누라다푸라를 비롯해 폴론나루와, 캔디, 시기리아 등이 스리랑카에서 훌륭한 불교 유적을 만날 수 있는 대표 명소다. 글_사진, 송일봉(여행작가)

스리랑카의 고대 도시, 아누라다푸라

스리랑카의 역사는 싱할라 왕조가 시작된 기원전 483년부터 따지면 2,500년이 넘는다. 싱할라 왕조의 유래에 대해서는 데바남피야 티사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247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아누라다푸라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불교 유적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곳곳에 크고 작은 탑과 사원들이 산재해 있다. 세계 각국의 불교 신자들을 비롯해 고건축에 관심이 많은 건축학도와 미술학도들 그리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문화재 전문가들과 고고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아누라다푸라는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건설된 이후로 남인도 침략자들의 공격을 받은 993년까지 1,300년이 넘게 싱할라 왕조의 수도로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곳이다. 아누라다푸라 최대의 전성기는 두투가마니 왕이 통치하던 기원전 167년부터 137년까지 30년. 현재 아누라다푸라 곳곳에 산재해 있는 불교 유적들 대부분은 바로 이 시기에 조성되었다.

하지만 불교문화를 바탕으로 태평성대를 누리던 아누라다푸라는 수백 년 동안이나 밀림 속에 파묻혀 있었다. 잦은 외침을 견디다 못해 수도를 근처의 폴론나루와로 옮겼기 때문이다. 그 후 1800년대 초에 이르러 영국의 한 젊은 관리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면서 아누라다푸라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이후 1912년부터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스리랑카를 대표하는 불교문화 중심지로 자리를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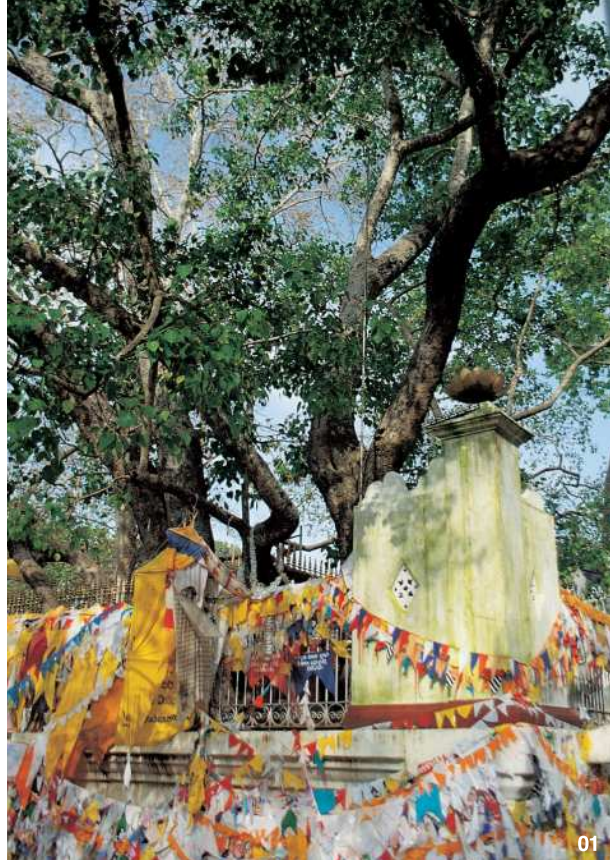


*송일봉 작가는 (사)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해외여행전문지 ‘코리안 트레블러’ 편집부장과 대한항공 기내지 ‘모닝캄’ 편집장을 지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 기획위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국립공원 대표경관 100경’ 선정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 문화답사 프로그램 ‘송일봉의 감성여행’을 24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매주 KBS, MBC, 교통방송 등에 출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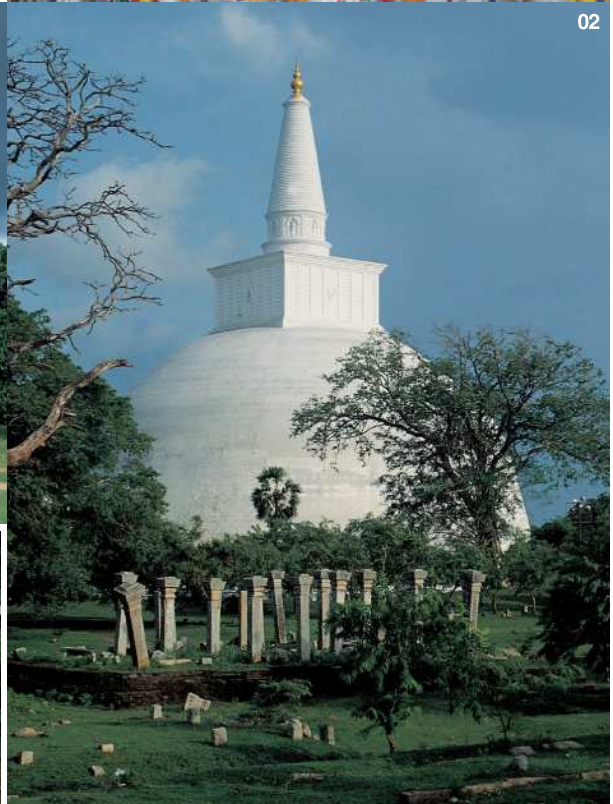


현재 아누라다푸라에는 옛 왕궁을 비롯해 사원, 불탑 등 수많은 유적이 산재해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일명 ‘스리 마하 보디 트리’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리수나무(사진 01)다. 수령이 약 2,260년으로 추정되는 이 거목은 인도 아쇼카 왕의 딸이었던 상가미타 공주가 기원전 245년 무렵에 인도 부다가야의 보리수에서 꺾어온 나뭇가지를 심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아누라다푸라에는 높이 55m의 커다란 흰색 불탑인 루반벨리세야(사진 02)를 비롯해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제타바나라마야 불탑(사진 03), 아누라다푸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탑인 투파라마 대탑(사진 04), 옛 스리랑카 사람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엿볼 수 있는 고고학 박물관, 그리고 인공호수인 티사웨바 동쪽의 바위를 뚫어서 세운 사원인 이수루무니야 사원 등이 있다.



01



02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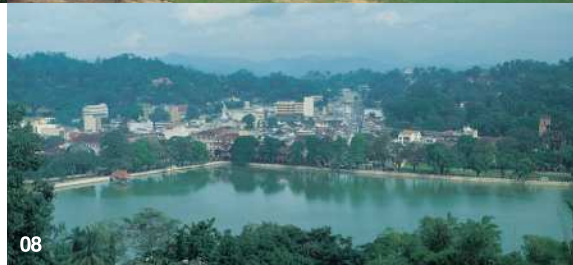


03

- 01.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보리수나무
- 02. 높이 55m의 거대한 불탑인 루반벨리세야
- 03. 벽돌로 지은 불탑인 제타바나라마야
- 04. 아누라다푸라에서 가장 오래된 불탑인 투파라마
- 05. 아누라다푸라 근교에 있는 시골장터



06. 폴론나루와 옛 시가지에 있는 왕궁터
07. 폴론나루와를 대표하는 불교유적지인 '갈 비할라'
08. 고원도시 캔디에 있는 인공호수인 '캔디 호수'



중세의 불교성지, 폴론나루와

스리랑카 싱할라 왕조의 수도였던 폴론나루와는 아누라다푸라에서 100km쯤 떨어져 있다. 폴론나루와는 인도의 잦은 침략에 견디다 못한 싱할라 왕조가 1293년에 수도를 포기한 이후로 수백 년 동안 밀림 속에 방치돼 있었다. 그 후 1900년 무렵에 유적 발굴이 시작되면서 중세의 불교성지(사진 06)로 빛을 보게 되었다.

폴론나루와 옛 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파라크라마 바푸 1세'의 왕궁터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명소다. 지금은 비록 다 허물어져 가는 옛 건물들이, 앙상한 기둥과 벽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아한 기품과 위엄이 건물 곳곳에 서려 있다. 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폴론나루와 옛 시가지에는 왕궁터 외에도 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투파라마 불당을 비롯해 폴론나루와에서 가장 예술적인 건물로 평가받고 있는 바타다게 불당,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가장 큰 비석인 갈포타 등과 같은 불교 유적들이 있다.

또한 폴론나루와 최고의 명소라 할 수 있는 '갈 비할라'에는 커다란 바위를 깎아서 3체의 불상을 만들어 놓은 불교사원 유적이 있다. 이들 불상 가운데서도 맨 오른쪽에 누워 있는 열반불상(사진 07)은 그 길이가 무려 13.4m나 되어서 이곳을 찾는 여행자들이 탄성을 자아내게 만든다.

불교 유적지들이 많은 북부 내륙지방과 인구 밀집 지역인

중남부 지방을 연결하는 산악지대는 고원 휴양지로 인기가 높은 곳이다. 해발 500m 지점의 아늑한 분지에 있는 '캔디'는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휴양지이자 문화 여행지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비밀스러운 느낌을 주는 데다 스리랑카 고유의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가장 스리랑카다운 도시'로 불리는 곳이다.

오늘날 '캔디 문화'라 일컬어지는 스리랑카 고유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는 캔디는 1474년에 싱할라 왕조의 수도가 되면서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도시다. 캔디에 정착한 싱할라 왕조는 이후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등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꾸준히 이어 나갔다. 그러나 350년 가까이 유지되던 싱할라 왕조는 1815년에 이르러 왕권 내부의 갈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결국 멸망하게 된다.

캔디 시내 한가운데 있는 캔디 호수(사진 08)는 1812년에 싱할라 왕조 마지막 왕이었던 '라자싱하'에 의해 조성되었다. '호반의 도시, 캔디'로서의 명성에 걸맞게 2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잘 관리되고 있다. 호수 속에서는 캔디 사람들이 매우 신성하게 여기는 흰색 자라와 함께 여러 물고기들이 자라고 있으나 낚시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캔디의 가장 대표적인 명소인 ‘불치사’(스리 달라 다 말리가와)(사진 09)는 불치(부처의 치아)를 모시고 있는 사원이다. 이곳에 모셔져 있는 불치는 기원전 543년 인도에서 석가모니를 화장할 때 수습한 것이라 한다. 불치가 캔디로 옮겨진 것은 1590년이다. 불치사는 새벽부터 해 질 무렵까지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참배를 할 수 있다. 불치가 있는 방의 문은 하루에 세 번 행해지는 푸자(예불) 때만 열린다. 하지만 불치 실물이 공개되는 것은 1년에 한 번뿐이다. 해마다 8월에 열흘 동안 불치를 일반에 공개하는 ‘에살라 페라헤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 가운데 하나다.



09. 부처의 치아가 봉안되어 있는 불치사



10



11

10. 시기리아에 있는 바위산 전경
11. 시기리아 바위산에 그려져 있는 벽화의 일부

TIP

스 리 랑 카 의 특 산 물

대표적인 특산물인 ‘실론 티’라 불리는 홍차다. ‘세계 최대의 홍차 수출국’이라는 타이틀이 이를 대변한다. 이 홍차들은 스리랑카 중부의 고산지대인 하푸탈레(우바 주)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스리랑카 홍차인 ‘우바’는 중국의 ‘기문’, 인도의 ‘다즐링’ 등과 함께 ‘세계 3대 홍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스리랑카는 보석의 산지로도 유명하다. 사파이어, 루비, 캣츠아이(묘안석) 등이 ‘보석의 도시’인 라트나푸라 등지에서 많이 산출되고 있다.

싱할라족의 정신적인 성지, 시기리아

스리랑카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싱할라족은 그들 스스로 ‘사자의 후예’라 믿고 있다. 국기에도 칼을 든 사자를 그려 넣었을 정도다. 사자를 영물로 여기는 싱할라족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자산’이라는 의미를 지닌 시기리아는 성지외도 같은 곳이다.

‘시기리아’는 195m 높이의 거대한 바위산(사진 10)과 그 바위벽에 그려진 일명 ‘시기리아 레이디’라 불리는 벽화(사진 11)로 유명한 곳이다. 바위산이 있는 곳은 사방이 드넓은 밀림에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다. 여행자들은 마치 미로처럼 바위틈 사이로 난 돌계단과 철계단을 이용해 바위산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다.

밀림 한가운데 솟아있는 바위산은 473년에 부왕인 다투세나를 죽인 아들 카사파가 이복동생인 모갈란의 복수가 두려워 세운 임시 왕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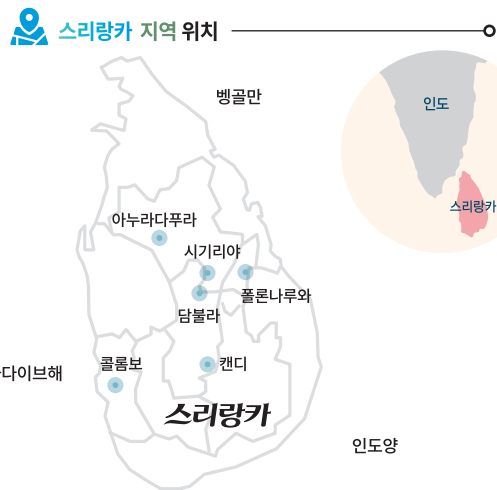
12

이 바위산에는 무력으로 왕이 된 카사파가 아버지 다투세나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당대의 예술가들을 동원해 그렸다는 벽화들이 1,5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일설에는 “왕을 따라와 객지 생활을 하게 된 병사들이 고향의 아내를 그리워하며 그린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벽화가 있는 바위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옛날에는 정원이 있었다는 넓은 공터가 하나 나타난다. 이곳에서 다시 사자의 발톱이 새겨진 ‘라이언 테라스(사진 12)’를 지나 가파른 계단을 따라 10분쯤 올라가면 마침내 옛 왕궁이 있었던 정상에 서게 된다.

바위산의 가장 높은 지점에는 해가 떠오르는 방향을 향해 커다란 돌을 깎아서 만든 왕좌가 놓여 있다. 아마도 카사파는 바위산에서 11년을 사는 동안 이 왕좌에 앉아 불안한 상태로 연회를 감상하거나 깊은 사색에 빠지곤 했을 것이다. 왕좌 아래로는 야외 목욕탕을 연상케 하는 대형 수조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그제 전부터. 훗날 동생 모갈란의 공격을 받고 생을 마감한 그의 운명처럼 7년 공사의 결실인 왕궁 건물의 흔적도 모두 시간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시기리야의 들머리 역할을 하는 담불라는 2,000년 된 석굴사원(사진 13)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기원전 1세기 무렵, 남인도 타밀군에 쫓기던 싱할라 왕조의 발라감부 왕은 잠시 동안 담불라의 야트막한 바위산을 은신처로 이용하게 된다. 훗날 피난 기간 동안 정성껏 도움을 준 승려들을 위해 발라감부 왕이 석굴을 지어준 것이 담불라 석굴사원의 시초다. 현재 담불라 석굴사원은 다섯 개의 석굴에 모두 160여 기의 석불이 모여져 있다. 석불들을 조성하는 데는 이 동굴 속에서 캐낸 자연석을 사용했다고 한다. ㉔



13

12. 사자의 발톱이 조각되어 있는 '라이언 테라스'
13. 2,000년 전에 조성된 담불라 석굴사원

TIP

스 리 랑 카 여 행 시 주 의 할 점

스리랑카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내전으로 인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스리랑카 내전은 다수의 싱할라족(불교계)이 소수의 타밀족(힌두계)에 대한 차별정책을 펼치면서 시작되었다. 결국 타밀족은 1965년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1983년부터는 타밀족 무장단체인 타밀엘람해방호랑이(LTTE)와 정부군 사이에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스리랑카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관리하는 여행 경보단계인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 특별여행주의보(철수권고),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 가운데 1단계인 남색경보에 해당하는 나라다.

그동안의 내전으로 인해 스리랑카에서 외국 여행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는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경계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작은 도시를 여행할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YOU GOT SO YOU DON'T EVEN
NOTICE THE HALF-DEAD VAGRANTS
ON THE STREET. THEY'RE ONLY
DIRTY GHOSTS. THE ONLY ONE WHO
SEND SHIVER DOWN YOUR SPINE
ARE THE UNDEAD. THEY DON'T
WEAR EYES. THEY ONLY HAVE
EYES OF FIRE. THEY KNOW THEY
WANT TO. THEY STARE AT THEM,
AND THEY KNOW THEY HATE YOU.
YOU WON'T BE A PRETTY
NIGHT IF THEY GO FOR YOU.
OTHERS ARE THE SAME. THEY
YOU LOOK AT THE MEN FOR
SIGNS OF LINGERING HEALTH
AND OBVIOUS HATRED. YOU EVEN
WATCH THE FALLEN ONES WHO
MIGHT BE YOUR FRIENDS. YOU
WHO MIGHT CLAW YOUR ANKLE
AND TAKE YOU DOWN.

REIN OUR FUCKING SELF BEFORE
THEY DO. OTHERWISE THEY'LL
SCREAM BECAUSE YOU'RE A
NORMIE. THEY'LL SAY "YOU
ALONE, BUT YOU'LL HAVE TO
CRAWL AROUND FOR THE
FOR EVERYBODY." YOU
MIGHT AS WELL STAY DRINK OR
MOMENT AND BE A
FUCKER. IF THE RICH GUYS WANT
TO PLAY WITH YOU, MAKE THEM
GET THEIR HANDS DIRTY. SEND
THEM AWAY GAGGING OR
SCORCHED IF THEY
HARBORING. YOU'LL BE LEFT ALONE
IF YOU'RE FRIGHTENING, AND
DEAD YOU'RE FREE! YOU CAN
CHANGE THE RADIANT CHILD IN
YOUR LIFE. REFLECT THE
THE SHIT YOU WERE MEANT TO SERVE.

BECAUSE THERE IS NO GOD SOMEON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MEN.
A CHARMISMAN LEADER IS IMPERATIVE.
DIGNITY SUBORDINATE THE SMALL WILL
TO THE GREAT. THE SMALL MUST WITH
AND HIS VISION REDEEM MEN. HIS
PERFECTION MAKES THEM GRATEFUL.
LIFE IS NOT SACRED, THERE
IS DIGNITY IN THE FLESH.
UNDETERMINED, THE MEN GO WITH
RANDOM, SQUALID, POINTLESS LIVES.
THE LEADER GIVES DIRECTION
AND PURPOSE. THE LEADER FORCES
GREAT ACCOMPLISHMENT. HE DEMANDS
LOYALTY AND RESPECT FROM HIS
AGGRESSORS. HE IS THE ARCHITECT
OF DESTINY. HE DEMANDS ABSOLUTE
LOYALTY. HE MERITS UNQUESTIONING
DEDICATION. HE ASSES THE SUPREME
MACHINERY OF THE UNIVERSE.

(DON'T TALK DOWN TO ME. DON'T BE POLITE TO ME. DON'T TRY TO MAKE ME FEEL NICE. DON'T RELAX. I'LL CUT THE SMILE OFF YOUR FACE. YOU THINK I DON'T KNOW WHAT'S GOING ON. YOU THINK I'M AFRAID TO REJECT THE JOKE? ON YOU. I'M HIDING MY TIME, LOOKING FOR THE SPOT YOU THINK NO ONE CAN REACH YOU, NO ONE CAN HAVE WHAT YOU HAVE. I'VE BEEN PLAYING WHILE YOU'RE PLAYING. I'VE BEEN SAVING WHILE YOU'RE SPENDING. THE GAME IS ALMOST OVER SO IT'S TIME YOU ACKNOWLEDGE ME. DO YOU WANT TO FALL NOT EXTREMELY CLOSE, BUT CLOSE, NOW.)

REJOICE! OUR TIMES ARE INTOLERABLE.
TAKE COURAGE, FOR THE WORST IS A
HARBINGER OF THE REST. ONLY
DIRE CIRCUMSTANCE CAN PRECIPITATE
THE OVERTHROW OF OPPRESSORS. THE
GOOD AND THE JUST WILL BE FORCED TO
WASTE BEFORE THE JUST CAN TRIUMPH.
OPPOSITION IDENTIFIES AND
ISOLATES THE ENEMY. CONFLICT
OF INTEREST MUST BE SEEN FOR
WHAT IT IS. REFORM IS NOT
PALLIATIVE GESTURES; THEY CONFUSE
THE PEOPLE AND DELAY THE INEVITABLE
CONFRONTATION. DELAY IS NOT
TOLERATED FOR IT JEOPARDIZES THE
FIGHTING FOR JUSTICE. THE
CONTRADICTION WILL BE HIGHLIGHTED
THE RECKONING WILL BE HASTENED BY
THE STAGING OF SEED DISTURBANCES.

SHRIEK
DURING
INTO THE
SOUND
A SOUND
MAN ST
AND NAX
BEGIN. S
LIFE IS T
NOISE S
TORMEN
VOICE TH
THROAT.
HIM TH
WHEN H
HE CANN
TORTUR
DESTROY
AND BLA
MAY G

오은영, 김수민, 윤미선 회원의 우정 여행기

한 박자 쉬어가는 길, 남원골 그녀들의 서울 힐링 여행

BECAUSE THERE IS NO GOD SOMEONE
MUST TAKE RESPONSIBILITY FOR MEN.
A CHARISMATIC LEADER IS IMPERATIVE.
HE CAN SUBORDINATE THE SMALL WILL
TO THE GREAT WILL, THE SMALL DESTINY
AND HIS VISION REDEEM MEN. HIS
PERFECTION MAKES THEM GRATEFUL.
LIFE ITSELF IS NOT SACRED; THERE
IS NO DIGNITY IN THE FLESH.
THE GREAT LEADER IS CONTENT WITH
RANDOM, SQUALID, POINTLESS LIVES.
THE LEADER GIVES DIRECTION
AND PURPOSE. THE LEADER FORCES
GREAT ACCOMPLISHMENTS, MANDATES
THE GREAT AND REDEEMS THE SMALL.
AGGRESSORS, HE IS THE ARCHITECT
OF DESTINY. HE DEMANDS ABSOLUTE
LOYALTY. HE MERITS UNQUESTIONING
DEVOTION. HE ASKS THE SUPREME
SACRIFICE.

DON'T TALK DOWN TO ME. DON'T BE POLITE TO ME. DON'T TRY TO MAKE ME FEEL NICE. DON'T RELAX. I'LL CUT THE SMILE OFF YOUR FACE. YOU THINK I DON'T KNOW WHAT'S GOING ON? YOU THINK I'M AFRAID TO REACT TO THE JOKE'S ON YOU? I'M RIDING MY TIME, LOOKING FOR THE SPOT. YOU THINK NO ONE CAN REACH YOU, NO ONE CAN HAVE WHAT YOU HAVE, I'VE BEEN PLANNING WHILE YOU'RE PLAYING. I'VE BEEN SAYING WHILE YOU'RE SPENDING. THE GAME IS ALMOST OVER SO IT'S TIME YOU ACKNOWLEDGE ME. DO YOU WANT TO FALL NOT EVER KNOWING WHO TOOK YOU



REJOICE! OUR TIMES ARE INTOLERABLE.
 TAKE COURAGE, FOR THE WORST IS
 A HARBINGER OF THE BEST. ONLY
 DIKE CIRCUMSTANCE CAN PRECIPITATE
 THE OVERTHROW OF OPPRESSORS. THIS
 OLD AND CORRUPT MUST BE LAID TO
 WASTE BEFORE THE JUST CAN TRIUMPH.
 OPPOSITION TO THE UNPITIES AND
 ISOLATION OF THE CONFLICT
 FOR THE WORK
 THEY CONFUSE
 THE INEVITABLE
 IS NOT
 REDUCES THE
 ORRITY
 HEIGHTEN
 HE HASTEN
 DISTURBANCE

SPIRIT. HE'S THE PAIN HIT
DURING INTERROGATION, REACH
TO THE DARK AGES TO FIND A
SOUND THAT IS LIQUID HORROR.
A SOUND OF THE BRINK WHERE
MAN STOPS AND THE BEAST
AND NAMELESS CRUEL FORCES
BEGIN, SCREAM WHEN YOUR
LIFE IS THREATENED, FORM A
NOISE SO TRUE THAT YOUR
TORMENTOR RECOGNIZES IT AS A
VOICE THAT LIVES IN HIS OWN
THROAT. THE TRUE SOUND TELLS
HIM THAT HE CUTS HIS FLESH
WHEN HE CUTS YOURS, THAT
HE CANNOT THRIVE AFTER THAT
HE CUTS YOU. SCREAM THAT HE
DESTROYS ALL KINDNESS IN YOU
TO BLACKEN EVERY VISION.
HE COULD HAVE SHOWN HIM.

FEAR IS THE MOST ELEGANT WEAPON.
YOUR HANDS ARE NEVER MESSY.
THREATENING BODILY HARM IS CRUEL.
WORSHIPING AN IDEAL IS A BELIEF.
TO DANCE WITH IT IS LIKE A PRIDE.
BE CREATIVE IN APPROACH, FORCE.
ANXIETY TO ENCRUSTING LEVELS OR
FEELS UNDERMINE THE PUBLIC
WISDOMS. IT IS A TRICK. IT CAN BE
OVERSTATED. AN ALTERNATIVE IS
TERROR-INDUCED IMMOBILIZATION. FEAR
FEELS IN FORCE. PUT THIS EFFICIENT
PROCESS IN MOTION. MANIPULATION IS
THE MOST ELEGANT WEAPON. ECONOMIC,
SOCIAL AND DEMOCRATIC INSTITUTIONS
CAN BE SHAKEN. IT WILL BE
DEMONSTRATED THAT NOTHING IS SAFE,
SACRED OR SANE. THERE IS NO
SACRED SPACE. THE BELIEFS ARE
QUICKLY OVER. FEELS ARE SPECTACULAR

Y ALL HAS
O BLAZE.
CAN'T BE S
OOD TH
HE REST
VERY PIE
GLY WHO
ONSPIRE
ND AFRA
ON'T WAN
WEAKNE
LAVERY F
HAT HAS
ISE TRIU
IRE PURI
ENERGY. F
IGHT. LET
ELEBRAT
LET LIGHT
LAMES O

DON'T TALK DOWN TO ME. DON'T BE POLITE TO ME. DON'T TRY TO MAKE ME FEEL NICE. DON'T RELAX. I'LL CUT THE SMILE OFF YOUR FACE. YOU THINK I DON'T KNOW YOU'RE GOING ON. YOU THINK I'M AFRAID TO REACT. THE JOKE'S ON YOU. I'M RIDING MY TIME. LOOKING FOR THE SPOT. YOU THINK I DON'T KNOW YOU. NO ONE CAN HAVE WHAT YOU HAVE. I'VE BEEN PLANNING WHILE YOU'RE PLAYING. I'VE BEEN WAITING WHILE YOU'RE SPENDING. THE GAME IS ALMOST OVER SO IT'S TIME TO ACKNOWLEDGE ME. DO YOU WANT TO FALL ON YOUR FACE? I'M ONLY ONE STEP AWAY.

REJOICE: FOR TIMES ARE INTOLERABLE.
TAKE COURAGE, FOR THE WORST IS A
HARBINGER OF THE BEST. ONLY
DIRE CIRCUMSTANCE CAN PRECIPITATE
THE OVERTHROW OF OPPRESSORS, THE
DEATH OF A TYRANT. AND TO WASTE
BEYOND THE JUST CAN TRIGGER
OPPOSITION IDENTITIES AND
ISOLATES THE ENEMY. CONFLICT
OF INTEREST MUST BE SEEN TO
WHAT IT DOES NOT DO. FOR
PALLIATIVE GESTURES, FROM
THE PEOPLE AND DELAY THE
CONFRONTATION. DELAY IS
A CATALYST FOR THE WORST
WELL-BEING OF THE MAJORITY.
CONTRADICTION WILL BE HEARD.
THE RECKONING WILL BE HASTY.
THE STAGING OF SEED DISTURBANCE.

A close-up photograph of a black jacket, likely a ski jacket, featuring a prominent red stripe on the sleeve. The jacket has a high collar and a visible zipper.

QUANT ELEGANT WEAPON,
WE ARE NEVER MESSY.
DOING BODILY HARM IS CRUDE.
LEAD ON MINDS AND BELIEFS.
WRITERS LIKE I PREFER TO
APPROACH FORCE
BY CREATING LEVELS OF
PAIN FOR THE PUBLIC
THAT DEPRIVES HIS MAN HERDS
OF NUTRITION.
SOCIETALIZATION, FEAR
AND EFFICIENT
DESTRUCTION IS
DYNAMIC.
INSTITUTIONS
DOING NOTHING IS SAFE.
IT IS NO
GOOD. UNCOLLECTABLE
DATA ARE SPECTACULAR.

IT ALL HAS TO BURN, IT'S GOING
TO BLAZE, IT IS FILTHY AND
CAN'T BE SAVED, A COUPLE OF
GOOD THINGS ARE LEFT WITH
THE REST BUT IT'S O.K.
EVERY PIECE IS PART OF THE
UGLY WHOLE, EVERYTHING
CONSPIRES TO KEEP YOU HUNGRY
AND AFRAID FOR THE FUTURE.
DON'T WAIT ANY LONGER, WAITING
IS WEAKNESS, WEAKNESS IS
SLAVERY, BURN DOWN THE SYSTEM
THAT HAS NO PLACE FOR YOU.
LET IT TRUMPET FROM THE ASHES,
FIRE PURIFIES AND RELEASES
ENERGY, FIRE GIVES HEAT AND
LIGHT, LET FIRE BE THE
COURAGE FROM YOUR DELIVERANCE,
LET LIGHTNING STRIKE, LET THE
FLAMES DEVOUR THE ENEMY!

THE MOST
DOMINATE
WITH THE
GENNATIO
THE PHYN
HAVE POW
HIGH, THE
IT IS COME
"PROTECTE
VOIR DOMI
DOING HE
SOMEONE
THIS MIND
HELPING
YOURSELF
MEAN HE
HE'S ANG
BOO" CAN
REMEMBR
ALWAYS G

REJOICE! OUR TIMES ARE INTOLERABLE. TAKE COURAGE, FOR THE WORST IS A HARBRINGER OF THE BEST. ONLY DIRE CIRCUMSTANCE CAN PRECIPITATE THE OVERTHROW OF OPPRESSORS. THE OLD AND CORRUPT MUST BE LAID TO WASTE BEFORE THE JUST CAN TRIUMPH. OPPOSITION IDENTIFIES AND ISOLATES THE ENEMY. CONFLICT OF INTEREST MUST BE RESOLVED OR WEAT IT IS, DO NOT SUPPORT PALLIATIVE GESTURES; THEY CONFUSE THE PEOPLE AND DELAY THE INEVITABLE CONFRONTATION. DELAY IS NOT FORTUITOUS FOR THE OPPRESSORS. THE WELL-BEING OF THE MAJORITY. CONTRADICTION WILL BE HEIGHTENED. THE RECKONING WILL BE HASTENED BY THE STAGING OF SEED-DISTURBING SCENES. THE PEOPLE WILL BE AWAKENED.

SHRIEK WHEN THE PAIN HITS
DURING INTERROGATION, REACH
INTO THE DARK AGAIN FOR A
MOMENT THAT IT COULD HORROR,
A MOUNTAIN OF THE BRINK WHERE
MAN STOPS AND THE BEAST
AND NAMELESS CRUEL FORCES
BEGIN. SCREAM WHEN YOUR
LIFE IS THREATENED, FORM A
NOISE SO TRUE, THAT YOUR
TORMENTOR RECOGNIZES IT AS A
VOICE, THAT LIVES IN HIS OWN
THROAT. THE TRUE SOUND TELLS
HIM THAT HE CUTS HIS FLESH
WHEN HE CUTS YOU, THAT
HE CANNOT THRIVE AFTER HE
TORTURES YOU. SCREAM THAT HE
DESTROYS ALL KINDNESS IN YOU
AND BLACKENS EVERY VISION
YOU COULD HAVE. SHOWS HIM,

BURN, IT'S GOING
 LETHY AND
 COUPLE OF
 BURN WITH
 K.K.
 OF THE
 THING
 YOU HUNGRY
 REBABIES
 GER, WAITING
 ESS IS
 THE SYSTEM
 R YOU
 IN THE ASHES,
 LEASES
 AT AND
 DELIVERANCE,
 LET THE
 E, EMPTY?

THE MOST EXQUISITE PLEASURE IS DOMINATION. NOTHING CAN COMPARE WITH THE FEELING OF THE REAL SENSATIONS ARE EVEN BETTER THAN THE PHYSICAL ONES. KNOWING YOU HAVE POWER HAS TO BE THE BIGGEST HIGH, THE GREATEST COMFORT. IT IS COMPLETELY SAFE. NO PROTECTION FROM HURT, WHEN YOU DOMINATE SOMEBODY YOU'RE DOING HIM A FAVOR. HE PRAISES SOMEONE, WILL COME TO YOU, TAKE HIS HANDS OFF HIS THROAT, YOU'RE HELPING HIM WHILE HELPING YOURSELF. EVEN WHEN YOU GET MEAN HE LIKES IT. SOMETIMES HE'S ANGRY AND SCREAMS, BUT YOU CAN HANDLE IT. HE ALWAYS REMEMBERS WHAT HE NEEDS, YOU ALWAYS GET WHAT YOU WANT.

FREEDOM
 YOU WANT,
 ARE THEY
 OUT TO KILL
 IS ORDER
 NO, WHAT
 LACK OF
 NOW? LET
 NEEDS, IN
 OR IS IT U
 ANSWER I
 ARE GOOD
 IS LIBERA
 WHEN OV
 BORN RAC
 YOU PLUN
 WHAT YOU
 DO? LET
 WITH IT, I
 MANIPUL

SHRIK WHEN THE PAIN HITS
DURING INTERROGATIONS, REACH
INTO THE DARK AGES TO FIND A
SOUND THAT IS FORTIFIED HORROR.
A SOUND OF TORTURE THAT HAS
NO MAN STOPS AND THE BEAST
AND NAMELESS CRUEL FORCES
BEGIN, SCREAM WHEN YOUR
LIFE IS THREATENED, SCREAM A
NO, NO THAT THAT YOUR
TORMENTOR RECOGNIZES IT AS A
VOW THAT LIVES IN HIS OWN
THROAT, THE TREE SOUND TELLS
THAT HE IS IN THE DARKNESS
WHEN HE CUTS YOURS, THAT
HE CANNOT THRIVE AFTER HE
TORTURES YOU, SCREAM THAT HE
DESTROY ALL KINGS, SCREAM YOU
SCREAMS EVERY VINDY
YOU COULD HAVE SHOWN HIM.

1. 좋은 배우 양성할 수 있다
 2. 배우를 분류하면 마음이 진정된다!
 3. 배우는 작화이다
 4. 97년 1월 1일 개교 10주년 기념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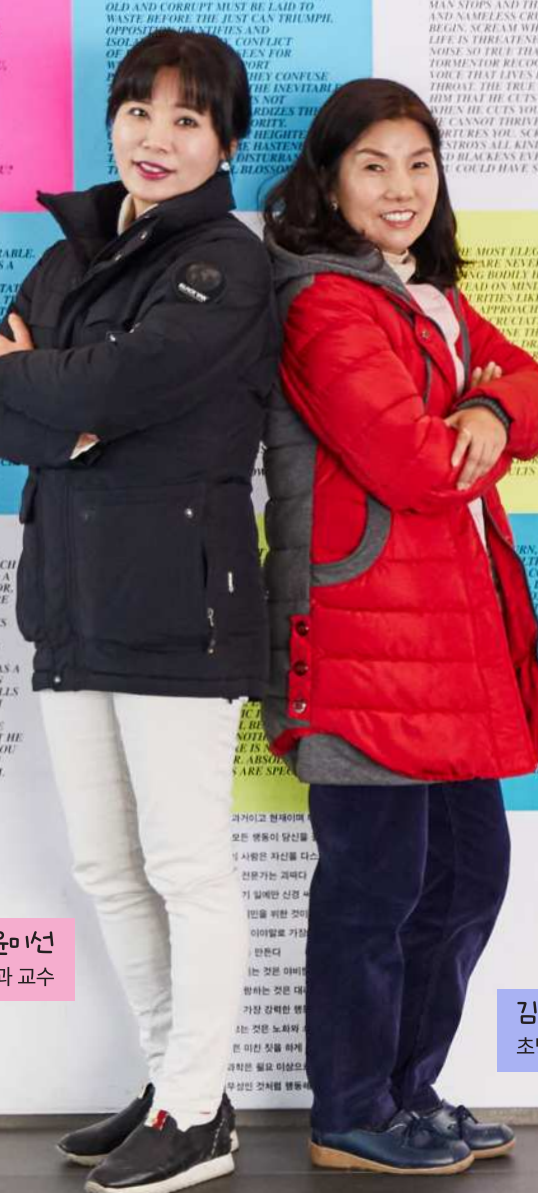
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
 1. 한국적인 행동은 별학인 심리에 근거한다
 2. 공간주의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은 지루하다
 3. 공간적인 지체가 세간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낸다
 4. 미하는 자연의 발식이다

남 사형관 자신은 디스
전으로 가는 것이다.
기 일배만 신명 사
만을 위한 것이
아마일로 가질
만한다
하는 것은 아비
원하는 것은 대
가장 강력한 영
는 것은 노획하
른 미친 짓들 해
극적인 필요 이상으

김수민
초당대학교

인간과 교수

...는 발견
...이 나에게
...한 거로
...같은 곡파
...침이 늘
...주는 데
...할 줄 지
...한 것이
...적인 결
...각은 온
...를 믿어
...는 보물

윤미선
국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 교수

김수민
초당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진짜 친구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힘든 고비가 있기 마련이다. 그럴 때 누군가 함께 있었으면 하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친구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온다. 오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한 남원제일고등학교 오은영 교사는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임을 느꼈다고 말한다. “지난달 심장 스탠스 시술을 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아프고 나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때 가장 힘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친구들이었어요. 마치 자기 일처럼 걱정하고 위로해 주었죠. 그런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아름다운 동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오은영 교사와 함께한 친구는 초당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김수민 교수와 국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의 윤미선 교수다. “세 사람이 전공이 같기 때문에 연수나 세미나 등을 함께 하며 더 친해졌어요. 저와 오은영 선생님은 동갑이고, 윤미선 선생님은 두 살 어리지만 사회에서 만나다 보니 친구처럼 셋이 즐겁게 지내고 있죠.” 김수민 교수가 세 친구의 시작에 대해 스토리를 풀자, 그 뒤를 이어 윤미선 교수가 우애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보탰다. “일단 우리는 대화가 잘 통해요.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요.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 다른 분야의 사람에겐 속내를 다 표현하기가 힘든데 우리는 조금만 이야기해도 무슨 얘기인 줄 단박에 아니까 특히 편하고 좋죠.”

세 사람의 여행지는 서울. 주로 업무와 관련해서 종종 오가는 곳이다 보니 정작 서울의 관광지를 여유롭게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세 사람은 이번 여행만큼은 수학여행 온 소녀들보다 더 신나게 서울을 즐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공감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그들

이들의 첫 번째 행선지는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이다. 한국 현대미술의 얼굴이자, 동시대 미술의 종합관을 지향하는 이곳은 과거에는 조선시대 소격서, 종친부, 규장각, 사간원이 있던 자리에 위치했다. 한국전쟁 후에는 국군수도통합병원, 기무사이기도 했던 역사적 유래가 깊은 곳으로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건물이기도 하다. 실내는 현대미술관으로 꾸며져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세 사람은 미(美)를 추구하는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답게 시종 일관 진지한 눈빛으로 작품을 관람했다. 오은영 교사는 “예술 작품은 이렇게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느끼는 모든 감정과 느낌이 나에게 녹아드니까요. 그게 수

업에 반영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 감각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많이 담아가려 노력하고 있어요.” 이에 윤미선 교수가 말을 이었다. “미술관이나 박물관의 리플릿도 가져가서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무엇을 가미하는 것이 좋을까? 나라면 어떻게 변형을 시킬까 고민을 해보거든요. 우리 일이 창의력과 컬러 감각도 필요하다 보니 모든 예술이 우리에게 영감을 줘요.”

이심전심, 여자들의 진한 우정

미술관 관람을 마친 세 사람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정한 한복 체험에 나섰다. 체험할 한복을 고른 오은영 교사는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여행을 오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궁궐을 거니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가 또 언제 이런 걸 해 보겠어요?” 원하는 스타일의 한복을 찾아 고르고 또 고르는 세 사람의 모습에 설렘이 가득하다. 한복으로 갈아입은 친구들은 우리나라의 대표 궁궐인 경복궁으로 향했다. 제법 추운 겨울 날씨였지만 세 사람의 열정은 뜨거웠다.

경복궁은 태조가 조선을 건국하고 한양 천도를 단행하면서 조선 시대에 가장 먼저 지어진 궁궐이다. 법궁으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엄정한 기하학적 공간 분할, 반듯한 축선 상의 건물 배치, 정연한 대칭 구조로 설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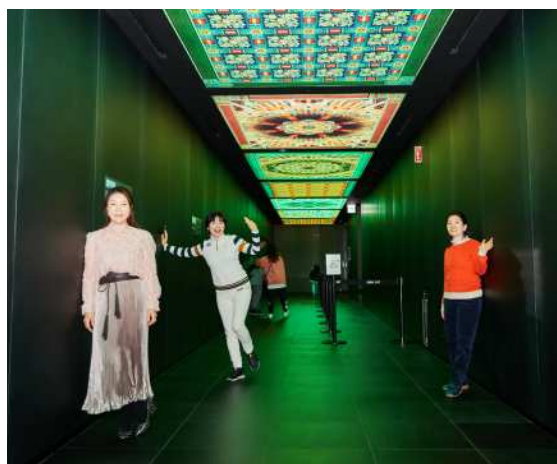
누구보다 발빠르게, 부지런하게 걸어다니는 오은영 교사에게 김수민 교수가 연신 “릴렉스~”를 외쳤다. 천천히 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오은영 교사의 걱정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커 보였다. “오은영 선생님은 평소 자기관리가 철저하고 운동도 만능이라 건강 쪽으로 걱정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죠. 저도 아팠던 때가 있어서 알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 이상을 느끼면 많이 당황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윤미선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제가 오은영 선생님한테 그대로 돌려준 거고요. 여자들의 우정이란 이런 것 아니겠어요. 서로를 살뜰히 챙기고 공감하는 거요. 아파본 사람은 아픈 사람 마음을 잘 아는 법이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은영 교사는 “일단 닥친 일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김수민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그 말이 큰 도움이 됐어요. 또한 편안하게 마음먹고 긴장하지 말라고 수시로 이야기해주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어요.”



아름다운 동행, 오래도록 함께할 우리

다음 날, 세 친구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아쿠아리움을 거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전망대에 올랐다. 탁 트인 서울 전경을 보며 오은영 교사는 함께 오지 못한 다른 친구를 떠올렸다. “같이 왔으면 너무 재미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이번에 제가 큰일을 겪으며 말로 표현 못할 만큼 큰 고마움을 느낀 친구가 있거든요. 세무사라 연초에 워낙 바쁘다 보니 이번 여행에 합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움이 있네요.” 오은영 교사는 힘든 일을 겪으며 자신의 인생에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김수민 교수는 “오은영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모든 걸 헤쳐 나가려 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엄격한 경향을 보일 때가 있거든요. 조금 풀어져도 되고 느슨해도 되는 데 말이죠.” 진심 어린 친구의 바람에 오은영 교사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웃어 보였다. “전 흐트러지는 것을 겁내 하는 편이에요. 내가 정해놓은 틀이 있으면 그 안에서 물을 지키려고 하고요. 그런데 김수민 선생님 말을 들으니 이제는 좀 변해도 좋겠다 싶어요. 저 좀 느슨해져도 되겠죠?” 두 친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진정한 친구들의 마음은 한결같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어떤 이유로든 힘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인생의 희로애락을 기꺼이 함께할 동반자로서 이왕이면 내 친구가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마음이니까.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우정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오은영(남원제일고등학교 교사)

“힘들 때 함께해준 친구들과 힐링할 수 있어 좋았어요”

좋은 친구들과 여행했는데 큰 힐링이 되었고 더 건강해진 기분이 드네요. 힘든 시간을 보낸 후 이렇게 행복하고 뜻 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준 한국교직원공제회 관계자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 함께해준 친구들에게 정말 사랑하고 고맙다는 마음 전하고 싶어요. 모두 건강하게 2020년 뜨거운 햇피플이 되어 봅시다!

김수민(초당대학교 뷰티디자인학과 교수)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겨 웃는 날이 많기를”

새해부터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할 수 있어 매우 설렘과 기분 좋은 여행이었어요. 힘든 시간을 극복한 우리 오은영 선생님, 그리고 밝은 기운 팍팍 전해주는 윤미선 선생님 고마워요. 앞으로 좋은 일 더 많이 생기도록 많이 웃고 즐겁게 삽시다.

윤미선(국제예술대학교 뷰티아트과 교수)

“지나간 일은 땡! 우리들의 무대는 큐, 2020년은 ‘땡큐’ 해요”

매순간이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오은영 선생님 덕분에 이런 여행을 하게 되어 더 즐거웠네요. 좋은 사람들과 기분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큼 좋은 건 없으니까요. 오은영 선생님! 김수민 교수님! 2019년 있었던 일은 모두 땡! 잊어요. 그리고 2020년은 우리들의 무대가 되기 위해 큐~하세요. 이렇게 ‘땡큐’할게요!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독자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특별한 여행을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The-K 매거진」이 만들어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thekmagazine@ktcu.or.kr

지난 1년간 총 27명의 회원님이 아름다운 동행에 신청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청해 주신 모든 회원님께 감사드리며, 매 호 한 분의 사연을 선정하다 보니 모든 분을 초대하지 못하여 죄송한 마음입니다. 회원님들이 보내주신 사연은 소중히 보관하고, 추후 시의적절한 사연을 선정하여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서울)

국립현대미술관은 1969년 개관 이래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자취를 함께 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다. 과천, 덕수궁, 서울, 청주 4관 체계로, 유기적이면서도 각각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 02-3701-9500

📍 서울 종로구 삼청로 30



경복궁

경복궁은 조선 왕조 제일의 법궁으로, 북으로 북악산에 기대어 자리 잡았고 정문인 광화문 앞으로는 넓은 육조거리(지금의 세종로)가 펼쳐져, 왕도인 한양(서울) 도시계획의 중심이었다. 경복궁에서는 격조 높고 품위 있는 왕실 문화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 02-3700-3900

📍 서울 종로구 사직로 161 경복궁



한복 이야기(한복 체험)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경복궁 동문(건춘문) 앞 대형 매장에 천 여 벌의 다양한 테마 한복을 구비하여 신명 나는 한복 체험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다.

☎ 02-734-9200

📍 서울 종로구 삼청로 22, 영정빌딩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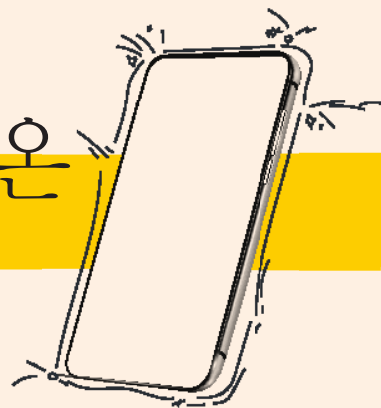
롯데월드타워 아쿠아리움+전망대

세계 5위, 국내 최고 높이 123층, 555m 높이의 서울스카이 전망대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서 서울을 360도 뷰를 통해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아쿠아리움에서는 전 세계 5대양 13개의 바다를 그대로 옮겨 놓은 다양한 테마존에서 해양생물과의 특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다.

☎ 02-3213-5000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00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불편한 질환들



기술의 발달에 따라 휴대성을 강조한 각종 디지털 기기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덕분에 일상이 좀 더 편리해지고 여가시간을 새롭게 즐기는 재미도 생겨났다. 하지만, 최근엔 우려의 시선도 나타난다. 장시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신체의 각 부위에 크고 작은 무리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글. 편집실

디지털 시장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갈수록 소형화·다양화되고 있는 휴대용 디지털 기기들. 본래의 용도를 뛰어넘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휴대성과 편리성으로 현대인들을 끊임없이 사로잡는다. 하지만 편리성 이면의 문제점 즉, 휴대용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각종 질환 역시 함께 대두되고 있다. 편리한 디지털 기기가 가져온 불편한 질환들엔 무엇이 있을까?

디지털 치매

디지털 기기에 너무 의존한 나머지 결국 두뇌의 기억 용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가리켜 '디지털 치매'라고 한다. 디지털 기기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연령 층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한다. 간단한 전화번호 외우기, 계산식조차도 휴대전화의 단축번호 기능이나 계산기 등으로 대체하고 손글씨를 쓰는 것조차 뜸해지는 디지털 세대에게 나타나는 질환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 건 아니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뇌가 일하는 것을 잊어버려 건망증이 심해지고 간단한 기억조차도 하기 힘들게 되니 꾸준히 뇌를 사용함으로써 뇌의 활동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예방법 스마트폰 사용을 의식적으로 줄이고 통화할 때는 이어폰을 사용해 전자파를 차단하는 것이 좋다. 또 기억해야 할 정보를 입 밖으로 소리 내어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기억력 향상과 디지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디지털 난청

요즘은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것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장시간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것은 귀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다. 이어폰은 외부 공기를 차단해 귓속 압력을 높이고 그 충격이 바로 고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대 볼륨의 80% 크기로 하루 90분 이상씩 습관적으로 음악을 들을 경우 청력 손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소음성 난청은 디지털 음향기기를 휴대하며 이어폰으로 음악을 즐겨 듣는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디지털 난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방법_ 이어폰에서 크게 흘러나오는 음악을 매일 8시간 이상씩 들으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으므로, 음악을 들을 때는 최대한 볼륨을 낮추고 이어폰을 장시간 습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청력검사를 받아보자.

손목터널증후군

보통 엄지와 둘째, 셋째 손가락이 저리고 무감각해지는 증상을 보인다. 갑자기 손목에 힘이 빠져 병뚜껑을 따기 힘들거나 정교한 동작이 어려우면 손목터널증후군을 의심해봐야 한다.

예방법_ 컴퓨터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때 의자의 높이를 잘 맞춰서 손목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제작된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손목을 받쳐주는 마우스 패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평소 주기적으로 손목을 털거나 손가락을 구부렸다 펴는 등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다.



근막통증증후군&거북목증후군

눈높이보다 낮은 화면을 내려다보면 거북목 자세가 습관적으로 반복되면서 나타난다. 장시간 컴퓨터나 소형 액정화면에 몰입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향하면서 점점 직선에 가까워지게 된다. 원래 목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C자형 곡선이어야 하는데 직선에 가까운 거북목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근막(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에 통증이 오게 된다. 주로 뒤통수가 빠근하며 지속해서 당기는 증상이 흔하다.

예방법_ 소형 디지털 기기로 액정 화면을 볼 때 고개를 숙이지 말고, 등과 목을 수직으로 유지한 채 최소한 30cm 정도 떨어져 시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의식적으로 적어도 한 시간에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면 큰 도움이 된다.

안구건조증

휴대용 디지털 기기는 대개 무게와 사이즈를 고려해 액정 크기가 3인치~6인치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각종 안구 질환을 일으킬 소지가 높다. 작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 안구가 건조해지고 눈에 쉽게 피로감이 쌓이는 안구건조증이 생긴다. 또 이동하는 차 안에서 작은 화면을 집중해서 보게 되면 초점을 맞추기 힘들어 눈이 쉽게 피로해진다. 계속해서 반복될 때에는 뇌압이 올라가 시력 저하는 물론 구역질이나 어지럼증까지 느낄 수 있다.

예방법_ 이동식 기기들의 모니터 글자 크기는 키우고 멀찍이 보자. 화면과의 거리는 40~50cm가 적당하고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는 75% 이하를 유지한다. 20분간 화면을 봤다면 20초는 휴식 시간을 갖고 먼 곳을 바라보는 습관을 들인다.



느리게, 여유롭게, ‘제주 한 달 살기’에서 찾는 심표

지난 몇 년간 제주 한 달 살기가 대유행을 한 후, 이제는 해외 한 달 살기로 눈길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아름다움과 편리함, 안전함, 경제성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제주만 한 곳을 찾기도 힘들다. 필자는 도시 여행자로서 지난 7년간 제주 한 달 살기를 실천하는 분들의 시행착오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제주 한 달 살기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실질적인 정보를 담아보았다.

글_사진 이연희(쥬레이지마마 대표, 『아이랑 엄마랑 제주 한달』 저자)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장 이국적인 국내 도시, 제주

야자수와 에메랄드빛 바다, 동네 곳곳에 솟은 봉긋한 오름에 올라 내려다보이는 진초록과 현무암이 어우러진 제주 풍경은 언제나 마음을 푸근하게 한다. 새 소리를 들으며 잠을 깨고, 탁 트인 하늘을 보며 운전을 하고 걷는 행복감. 자연과 가까이하는 삶의 소중함은 빌딩 숲으로 돌아가고 난 후 가장 크게 다가온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여러 번 거친 후 아예 살러 오는 ‘제주 이민자’들이 생긴다. 잘 나가던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 마을 구석구석 생뚱맞은 곳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의 삶을 엿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이를테면, 하루 20그릇만 팔고 문을 닫는 카레 가게, 골목 한구석에 보이지도 않게 작은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하는 책방, 일주일에 4일만 문을 여는 카페를 보면 유유자적한 그들의 삶이 부러워진다. ‘덜 일하고, 덜 소비하며 남이 아닌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우리 모두의 로망이 아니던가. 이렇듯, 다양한 방식의 삶을 목격하고 영감을 얻는 것은 짧은 여행에서는 얻기 힘든 한 달 살기의 큰 매력 중 하나이다. 또한 일단 말이 통하니 마음의 부담이 적고, 큰돈이 들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명만 한 달 살기를 해야 할 상황이면, 주말이나 유사시에 쉽게 가족이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어느 계절이든 좋은 제주살이

제주에는 어느 계절에 살아도 후회하지 않을 매력이 있다. 2월에는 산 하나를 몽땅 불태우는 들불 축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관이고, 3, 4월에는 유채도 좋지만, 각종 마늘이며 양파며 이삭줍기의 재미가 쏠쏠하다. 5월에는 굴꽃 향기가 진동하고, 6월에는 수국이 만개한다. 7, 8월에 즐기는 제주 바다는 하와이 못지않게 깨끗하고 아름답다. 제주의 가을은 비리지 않은 고등어 회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시기다. 흐드러진 메밀꽃밭을 지나는 올레길을 걷고, 소와 말이 풀을 뜯는 풍경을 보며 오름에 오르고, 매일 고등어 한 마리씩 구워 먹는 삶을 꿈꾼다면 가을에 제주 한 달 살기를 추천한다. 겨울은 굴 인심이 풍족하다. 동사무소에도 식당 문 앞에도 하나씩 들고 가라고 내놓은 굴이 가득하다. 동네 마트에서 신선한 전복과 방어회를 사다 먹을 수 있는 계절도 겨울이다. 눈이 한바탕 오고 나면 제주 아이들은 마방목지나 1100고지, 어리목 등등 한라산 자락 곳곳으로 천연 눈썰매를 타러 간다. 하얀 눈밭을 구르고 썩썩 썰매를 타며 놀던 겨울 한라산의 추억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제주살이의 추억 중 하나다.



9월 제주, 한치 말리는 풍경. 반쯤 말린 한치 구이를 사서 맥주와 함께 먹어보자.



4월 제주에선 직접 만든 고사리로 라면을 끓여먹는 재미를 누릴 수 있다.

숙소는 함께할 친구가 있는 곳으로

한 달간 편안한 생활을 위해 숙소를 잘 선택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조건에 100% 부합하는 완벽한 숙소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예를 들어, ‘아이가 마당 있는 단독주택에서 뛰어놀았으면 좋겠지만 벌레가 있으면 곤란하다’, ‘바닷가 돌집에 살아보고 싶다. 단, 보안은 철저히 해야 한다’라는 식의 기대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다. 다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해 가장 중요한 것만 충족되면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좋다.

두 아들을 키우는 필자의 경우 한 달 살기를 할 때 가장 고려했던 점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였다. 아이들과 함께 낯선 도시에서 한 달 살기를 한다는 것은, 곧 아이가 학교도 유치원도 가지 않고 내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마당과 이웃에 또래 아이들이 몇 명이라도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아이들이 밖에서 놀아줘야 엄마가 커피 한잔이라도 마실 여유가 생기고, 제주도까지 와서 밤낮 핸드폰만 붙들고 있는 아이들과 씨름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The-K 휴스테이’ 중 ‘제주 룽스테이’를 눈여겨 보자.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지에 마련된 5개의 숙박시설은 리조트형과 펜션형으로 다양함을 선사한다. 한 달 살기 숙소 할인은 물론, 맞춤 렌터카 할인 및 레저 체험 시설 할인까지 제공되니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을 누리보자.

렌터카보다는 택송 서비스

제주도 생활에 자동차는 필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많이 걸으며 느릿느릿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아이와 함께 두박이 생활은 너무 힘들다. 시내 한복판이 아니라면 쓰레기조차 자가용을 타고 나가서 버려야 하고, 버스가 하루에 네댓 번만 운행되는 지역도 많기 때문이다. 한달 간 렌터카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요즘은 타던 차를 배에 실어 보내는 택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익숙한 내 차로 다닌다는 심리적 안정감도 있지만, 한 달 생활에 필요한 많은 짐을 차에 실어 보내고 아이들과 캐리어 하나만 가지고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편리함이 있기 때문이다. 비용도 렌터카와 비슷하거나 저렴한 편이다.

집은 최소한으로, 하지만 꼭 필요한 건!

한 달 동안 집을 떠나 있으려니 이것저것 다 필요할 것만 같은 불안함에 거의 이사 수준으로 짐을 꾸리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하지만 우리가 호텔에 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집처럼 물건이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달 만이라도 미니멀리스트처럼 단출하고 쾌적하게 살아보자. 굳이 감자 깎는 칼이 없어도, 에어프라이어가 없어도 다 살게 마련이다. 짐을 줄이고 줄이는 와중에도 꼭 챙겨야 한다고 추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무 데나 착 펴고 앉을 수 있는 돗자리와 도시락통, 노키즈 존에 분노하고 눈치 보며, 굳이 전망 좋은 맛집을 찾아다닐 필요 없다. 제주도는 돗자리 펴고 앉는 곳이 다 전망 좋은 맛집이기 때문이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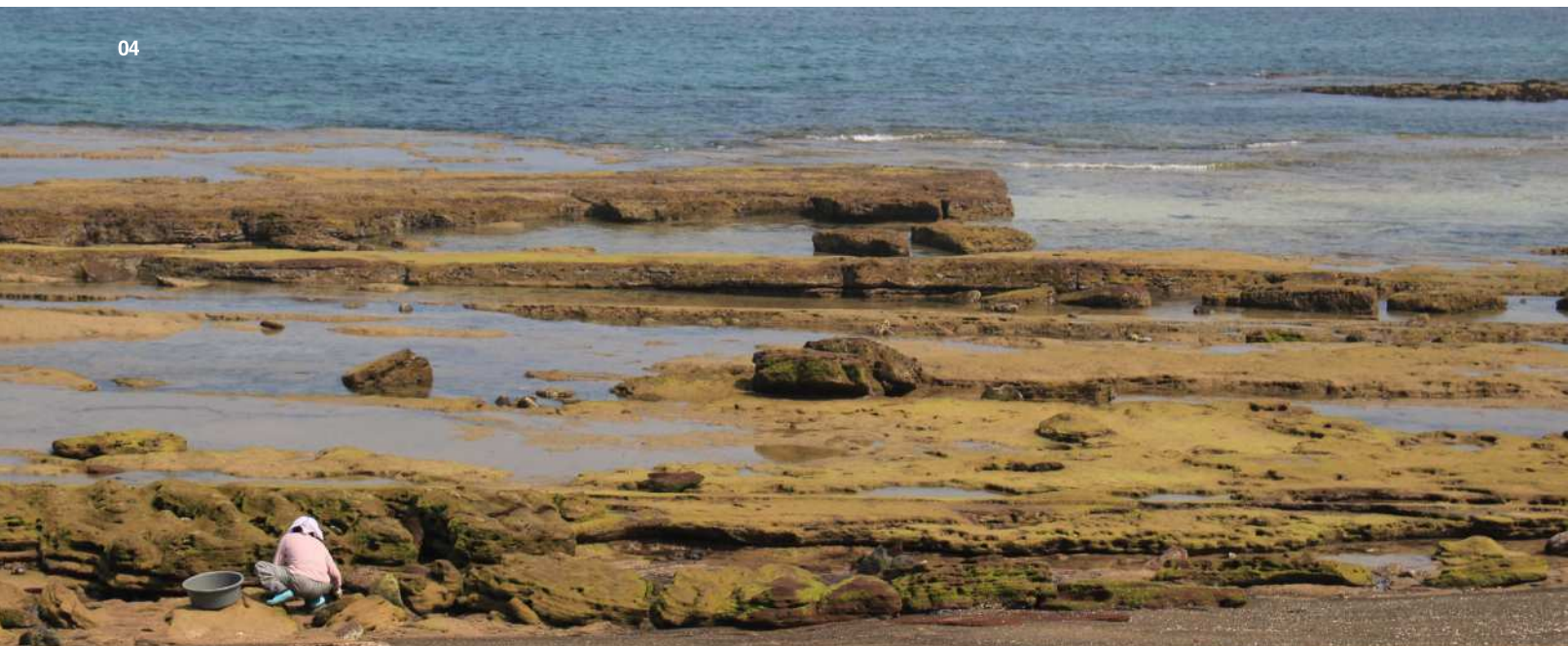


02



03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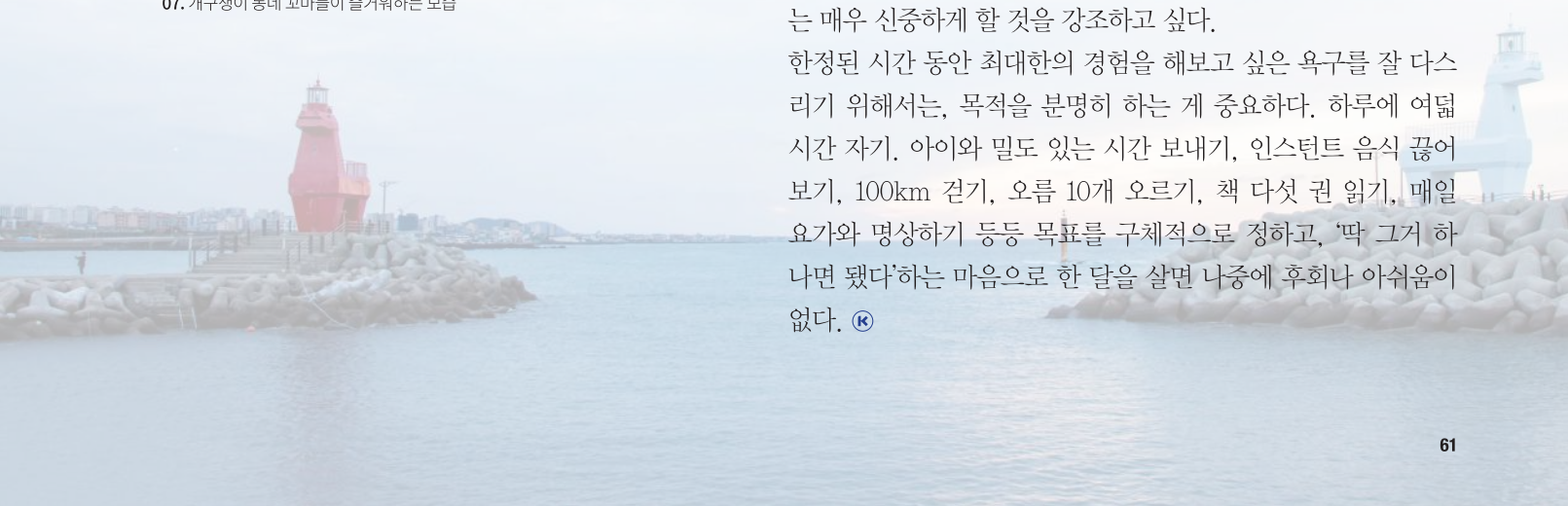


- 01. 이런 풍경이라면 운전도 지루하지 않다.
- 02. 오름 산책 중인 엄마와 아들
- 03. 부두식당 방어회
- 04. 올레21코스에서 경험할 수 있는 보말캐기
- 05. 한라산의 설경
- 06. 시골 학교 운동회는 동네 사람들의 잔치
- 07. 개구쟁이 동네 꼬마들이 즐겨워하는 모습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손님 초대

제주에 한 달간 숙소를 구하고 나면 주변의 많은 지인들이 갑자기 상냥하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어머 부럽다. 우리 주말에 가면 재워줄거지?” 설마 진짜 오겠냐는 생각에 빈말이라도 “그래, 놀러 와!” 하면 진짜로 오는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이 제주도다. 항공편이 워낙 자주 있고, 폭값이 싸서 웬만한 지방 도시보다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지인들이 오면 숙소만 나눠 써야 하는 게 아니다. 차도 함께 타야 하고, 밥도 함께 먹어야 한다. 나는 한 달 살기 중이지만, 여행 온 친구들은 단기 여행자라서 온 김에 가봐야 할 핫 플레이스가 너무나 많다. 별생각 없이 지인들을 초대했다가, 매주 찾아오는 친척, 아이 친구 엄마, 직장동료 가족들의 가이드 노릇을 하느라 한 달이란 시간을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피곤하게 보냈다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한 달 살기의 목적이 고마운 분들과 함께 시간 보내기라면 모를까, 제주의 여유로운 삶을 경험할 계획으로 왔다면, 배우자나 부모님 외에 지인 초대는 매우 신중하게 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한정된 시간 동안 최대한의 경험을 해보고 싶은 욕구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에 여덟 시간 자기. 아이와 밀도 있는 시간 보내기, 인스턴트 음식 끓여 보기, 100km 걷기, 오름 10개 오르기, 책 다섯 권 읽기, 매일 요가와 명상하기 등등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딱 그거 하나면 됐다’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살면 나중에 후회나 아쉬움이 없다. ㉠



일루션 아트로 황홀함을 선사하다 이은결 매직콘서트 「THE ILLUSION」

이은결의 마술에는 시간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다. 그가 안내하는 마술의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사람들은 환희에 빠진다. 동화같이 순수하고, 한편의 장편소설처럼 스펙터클한 매직콘서트 「THE ILLUSION」의 황홀했던 순간을 「The-K 매거진」이 함께했다.

글. 김유리 사진. 김도형

마술과 함께 즐기는 환상적인 시간

함박눈이라도 내릴 듯한 지난 12월 29일,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이 인천문화예술회관에 모였다. 추운 날씨임에도 공연장 로비에 모인 사람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며칠 후면 새해가 시작된다는 기대감 때문인지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터뜨렸다. 포토존에 줄을 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에서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감 또한 엿볼 수 있었다.

“연말이니 가족 혹은 가까운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공연이 주로 서울에서 개최되다 보니 인천·경기권 회원들에게 좋은 공연을 보여드릴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마침 인천에서 이은결 씨의 더 일루션 공연이 있다고 하여 선택하게 됐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문화복지팀 행사 담당자가 공연 기획에 대해 덧붙였다.

일루션 아티스트 이은결의 「THE ILLUSION」은 그동안 마술 영역에서 볼 수 없었던 서사를 지닌 작품이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더 일루션은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글로벌 퍼포먼스로 자리매김하며 연일 관객들의 뜨거운 찬사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마술의 영역을 넘어 ‘일루션’이라는 새로운 예술 플랫폼을 탄생시킨 이번 공연을 보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역시나 기대가 큰 만큼 제작진의 관객 맞기도 특별했다.



공연은 1시였지만 더 일루션의 경우는 시작 15분 전부터 관객들과 함께 호흡했다. 무대 위 카메라를 통해 객석에 앉은 커플들과 가족들이 스크린에 비치자 장내는 웃음꽃이 피었다. 오프닝에서는 이은결 매직 콘서트만의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는데 이날의 주인공은 결혼 30주년을 맞은 교사 부부였다. 부인에게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하는 남편을 보며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박수와 응원을 보냈다. 공연 전체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을 위한 것이다 보니 관객들의 호흡도 남달랐다. 모두를 하나 되게 만드는 마법 같은 순간이 공연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마술! 관객과 호흡하는 예술이 되다

무대의 불이 꺼지고 공연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탄성을 내질렀다. 눈 깜짝할 사이에 무대 위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조형물과 출연자를 보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환상의 세계로 빨리 오라는 듯 이은결의 퍼포먼스는 숨 고를 틈도 없이 휘몰아쳤다. 아티스트의 땀이 조명에 반사되어 별처럼 빛날 만큼 열정적인 무대였다. 스크린을 통해 영상과 실사를 넘나드는 그의 마술 세계는 중반으로 흐를수록 더욱 황홀한 재미를 선사했다.

시공을 잊은 듯, 관객들은 점점 일루션 아트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마치 관객 스스로가 일루션 아티스트와 같이 무대를 만들어가는 기분이 들 만큼 이은결의 더 일루션은 관객과의 호흡을 최우선으로 했다. 1회 공연부터 함께했다는 앵무새 ‘가지’는 공연장을 유유히 날아다니며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무대와 객석을 넘나드는 공연에 관객들은 남다른 친밀감을 느꼈다. 공연 후반부 객석의 어린이와 함께한 퍼포먼스는 이날 공연의 하이라이트가 되었다. 전 관객이 하나가 되어 공중에 떠오른 어린이에게 플래시를 비추는 장관을 연출한 것이다.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함께하는 재미를 선사한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윽고 그의 손으로 만든 아프리카를 끝으로 두 시간에 이른 환상의 세계가 끝났다. 여기저기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순간도 놓치기 힘든 알찬 구성의 퍼포먼스에 관객들은 아주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환상의 세계를 경험했다. 아마도 이날 공연은 2020년을 맞이하며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준 최고의 신년 선물이 아니었을까? 



Mini Interview

“아이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없이 행복”

박경진 백양초등학교 행정실장,
임종윤(남편), 임재현(아들)



아이가 마술 보는 걸 좋아하는데 「The-K 매거진」을 보다가 좋은 기회가 있어 신청했어요. 연말에 아이와 함께 오게 되어 기쁘네요. 공연은 많이 봤지만 매직 콘서트는 처음이라 색다른 경험과 추억거리가 되어 매우 행복합니다.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한 따뜻한 시간”

이은결(일루션 아티스트)



관람객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것을 무대에서 보고 있으니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하려 노력했어요. 지난 공연에서는 중학교 은사님을 초대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좋아하시는 걸 보며 언젠가 한 번은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전하는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 선생님들과 함께 호흡해서 매우 뜻깊었어요.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서 항상 사명감을 가지려 하는데,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들은 그 사명감이 더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분들인 만큼 항상 기운 잃지 않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파이팅!



은빛동행 청춘미디어아카데미 수료생, The-K 휴스테이 영상 체험단에 도전하다!

분주하게 일하던 시기를 지나 퇴직이라는 터널에 다다르면 많은 퇴직자들이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된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퇴직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영상미디어라는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배움을 통한 색다른 도전의 시간을 준비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휴스테이 영상 체험단은 그렇게 출발했다.

글. 편집실

영상으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다

지난겨울,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는 특별한 공지가 하나 떴다. 각 지역의 시청자미디어센터와 손을 잡고 퇴직회원을 대상으로 청춘미디어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이었다. 영상을 통해 세상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퇴직회원들의 신청이 대거 몰린 가운데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수료생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이들을 선발해 '휴스테이 영상 체험단'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안겨주었다.

총 신청자 53명 중 선발된 회원은 11명. The-K설악산 가족호텔과 The-K지리산가족호텔, The-K호텔경주, The-K서드에이지 등에 각각 나뉘어 찾아간 그들은 5일 이상을 해당 호텔에 머무르며 호텔 숙박 체험은 물론, 주변 관광지를 둘러보고 휴스테이와 관련된 새로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함으로써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냈다.

이 영상 체험단의 활약은 통상의 뻔한 홍보 동영상과는 사뭇 다른 결과물을 빚어냈다. 영상 체험단원들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찾아와 함께했던 가족들이 영상 제작 과정에 직접 등장하거나 참여함으로써 보다 친근하고 현실성 있는 영상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체험단원들이 직접 등장하고 내레이터로 참여한 영상은 보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줌으로써 휴스테이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했다.

실제로 체험단원들은 오래 머물수록 저렴해지는 숙박비로 부담 없이 장기여행이 가능하고 취사가 가능한 호텔도 있어 비용 부담이 적게 들며, 친구나 가족 등 방문객을 자유롭게 맞이하면서 느긋하게 주변을 여행할 수 있다는 점을 휴스테이의 큰 장점으로 꼽았다.

그간 배운 미디어 교육을 활용해 직접 기획하여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에 대해서도 큰 만족을 표시했다.

그들의 영상물과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휴스테이의 내용이 궁금하다면 유튜브에 들어가 직접 확인해 볼 일이다. 유튜브에서 #휴스테이 #한국교직원공제회 검색은 필수!

안종진 회원 The-K설악산가족호텔 체험 영상 제작



QR코드를 스캔하면
안종진 회원님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힐링 여행을 영상에 담다”

저는 지난 10월 16일부터 21일까지 The-K설악산가족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무르며 휴스테이를 체험하고 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인천포스코고교 교장으로 정년을 마치고 지혜공유학교라는 가상의 학교를 만들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에 대한 동영상 제작을 위해 미디어교육을 받은 것을 계기로 이번 영상 체험단에 참가하게 됐어요. 휴스테이 기간 동안 호텔 내부 영상은 물론, 인근 관광명소 등을 찾아다니며 약 400여 편의 영상을 찍었는데 여행으로 왔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것도 영상제작자로 더 세밀히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게 되니 무척이나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설악산의 아름다운 단풍에 몸과 마음을 빼앗겼고 고성통 일전망대에 올라 통일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정동진은 생애 첫 방문이라 더욱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휴스테이는 커다란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일반 투숙객과 비교해 놀랄 만큼 저렴한 숙박비, 호텔의 편의 시설과 가족을 대하는 듯한 직원들의 정성 어린 서비스에 큰 감동을 받았지요. 2020년에는 지혜공유학교의 활성화를 목표로 10기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할 예정이며 영상 작업도 계속 시도하고 The-K 호텔 네 곳도 모두 둘러볼 예정입니다. 최고의 힐링 여행, The-K 휴스테이를 추천합니다!

김철수 회원

The-K지리산가족호텔 체험 영상 제작



“가족과 함께한 영상 제작의 즐거움”

저는 평소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빛동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청춘미디어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소 사진 촬영을 취미로 갖고 있던 차에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체험단에 선발되어 홍보 영상을 찍는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여행을 즐길 수 있어서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지리산가족호텔 소개와 함께 구례시장과 소릿적에 즐겼던 계곡의 피라미 낚시 체험을 주제로 선정해서 촬영했는데 가족과 함께해 더욱 자연스러운 체험 영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피라미 낚시 체험 영상을 올린 후 짧은 시간 동안 1,000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해 놀랍고 어리둥절한 상태입니다(웃음). 휴스테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쾌적한 곳에서 장기숙박하며 아름다운 명소와 자연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노후의 삶에 이보다 더 필요하고 소중한 시간은 없을 듯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이며 공제회 회원들이 알찬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국 The-K 호텔 주변의 명소들도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래 머무를수록 더 특별해지는 혜택, 휴스테이! 꼭 한번 즐겨보십시오.



QR코드를 스캔하면
김철수 회원님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선우 회원

The-K경주호텔 체험 영상 제작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다”

퇴직 7년 차 회원으로 평소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자주 드나들며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활동에 조금씩 부담을 느끼던 차에 영상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고 응모를 했는데 이렇게 영상 체험단에도 선발돼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1월 22일~27일까지 The-K경주호텔에 아내와 함께 머물렀는데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와 가족여행까지 겸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면서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고마움에 휴스테이 홍보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

는데 오래 머물수록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휴스테이의 특성상 인근 관광지와 볼거리들을 최대한 담고자 애썼습니다. 불국사, 석굴암, 대릉원, 경주의 먹거리, 첨성대, 감포의 주상절리, 문무대왕릉, 양동마을 등 천년고도의 경주를 생생하게 담아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영상을 올리고 난 뒤 주변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휴스테이에 참여하고 싶다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The-K경주호텔에서 휴스테이 회원에게 보여준 극진한 서비스와 혜택에 감사드리며 저 역시 공제회 회원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



QR코드를 스캔하면
이선우 회원님의 영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작품 한 권

The-K 은빛동행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 ‘내 인생의 꽃은 바로, 나’ Ⅲ



지금의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까닭을 거슬러 오르다 보면 나만의 역사와 맞닿는다. 길건 짧건, 화려하건 소박하건, 모든 인생은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The-K 은빛동행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는 그렇게 시작했다. 어느덧 세 번째, 지난해 11월 14일부터 40일간의 응모 기간을 거쳐 최종 발표된 75명의 역사가 드디어 세상으로 나왔다.

글. 정은주 사진. 김도형

더 많은 특별회원을 위한 프로젝트

늘 새롭기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손이 닿고 마음이 가는 건 익숙한 쪽이다. 나의 취향과 흔적이, 조금 거창하게는 역사가 그곳에 배어 있는 까닭이다. 현재의 행복 여부와 무관하게 추억으로 미소 짓게 되는 건 그런 이유. 그러므로 우리는 잊히기엔 아쉬운 아니 아까운 어제를 기록하고 또 기억하려 한다. 이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의 삶의 기록을 지켜이 쌓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나섰다. 바로, 특별회원만을 위한 문화복지서비스 ‘The-K 은빛동행’을 통한 자서전 출간이다. 설명하자면, 퇴직한 교직원들의 가치 있는 삶을 글로 남김으로써 후손들을 비롯한 교육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는 프로젝트. 2019년 말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2017년부터 3년 동안 100여 가지 삶의 기록을 책으로 세상에 내놓았다.

선정된 10인에 한정되었던 1, 2회와 달리 3회 때는 문을 대폭 넓혔다. 덕분에 이번에는 총 75명에게 혜택이 돌아갔다. 게다가 집필부터 사진 선정까지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온전한 ‘내 책’이라는 자부심을 높였다.



내 손으로 직접 쓰는 나의 이야기

머릿속에 기록된 내용을 글로 풀어내는 작업이 간단치만은 않다. 특히 인생 전반을 훑는 자서전이라면 더할 터. 셀프 집필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제작 가이드라인 및 툴을 제공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누구나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과 정도 간소화했다. 온라인 자서전 집필 사이트에 가입한 후 형식에 맞춰 원고를 제출하고 사진을 올리는 식. 공정성과 효율을 위해 분량은 80페이지 이상, 120페이지 이하로 제한

했다. 제출한 원고는 전문가의 교정·교열·윤문·디자인 등의 편집 작업을 거쳐 자서전으로 발간됐으며, 자서전 출간 특별회원에게는 소프트 커버 자서전 5권과 함께 기념품, 전자책 PDF가 담긴 USB를 함께 전달했다.

참고로 자서전 출간 프로젝트는 많은 특별회원의 참가를 장려하고자 별도의 참가비 없이 진행된다. 다만 추가적인 부수 인쇄나 최대 페이지를 초과하는 원고 작성을 원할 경우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제공했다. ㉔



자서전 출간을 기념하며



김희정 회원

“여전히 꿈 많은 흥미진진한 인생”



‘사는 동안 책 한 권은 써야 할 텐데...’ 장난처럼 했던 말이 현실이 됐다. 틈틈이 가족에 대해 써놓은 글이 지나고 보니 딱 자서전 소재. 자신을 위한 기회라는 감이 왔다. 가장 뜻뜻할 때로 기억되는 유년 시절 추억, 그 속의 ‘젊은 나의 엄마’를 만나는 즐거움으로 차분히 원고를 완성해갔다. 그 과정에서 흠어져 사는 동생들과 잊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에게 몰랐던 옛날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희정씨 이야기’를 계기로 온 가족이 추억 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사실 국어 교사로 현직에 있을 때는 글쓰기에 오롯이 집중하는 건 꿈도 못 꿀 일이었다. 심야까지 빠듯한 일과에 동동거리며 사는 게 몸에 뻘었다. 하지만 명예퇴직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달라졌다. 지금은 모든 것을 천천히 해도 되는 삶이 너무 만족스럽다. 인생에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추억이 있겠나마는, 돌이켜 보니 환갑 때 아들, 딸, 며느리에게 손편지를 받은 기억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 이번에는 그의 차례. 발행된 책 다섯 권을 아들, 딸, 손녀에게 선물했다. 자서전 출간과는 별개로 인생은 계속될 터. 악기 연주와 댄스, 캘리그래피 등 취미 생활로 바쁜 와중에도 신춘문예에 등단해서 수필가란 이름을 얻고 싶다는 욕심이 꿈틀거린다. 언젠가 책을 한 권 더 내게 된다면 아마 ‘김희정 수필집’이 되지 않을까. 깊이 있고 진지한 고찰을 글로 만나게 되기를.



송규행 회원

“도전할 수 있다는 즐거움을 맛본 값진 추억”



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바로 ‘도전’이다. 이번 자서전 출판 계획을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역시 아버지 여전하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삶의 태도가 워낙 몸에 익은 탓. 곧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매일 일기를 쓰고 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개인의 일기장에 잠들어 있는 셈인데, 평생의 경험과 기억을 집약해 자녀와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 자서전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이 지혜라 생각해서가 아니다. 한 인간이 고난을 버티고 이겨내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용기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다. 돌아보면 긴 세월, 그동안 참 많은 것을 해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교육 전문직에 합격해 장학사, 장학관으로서 교육 현장 더욱 깊숙한 곳에서 역량을 발휘하기도 했다. 또 정년퇴직 후에는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도 오랫동안 섰다. 시간을 쪼개고 쪼개 공부한 덕분이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모든 공로를 아내에게 돌린다. 당시로서는 어려웠던 여성 교장을 역임하며 가정까지 살뜰히 건사한 아내 덕에 자신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었다는 것. 그를 값기 위해서라도 앞으로의 날들을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다. 힘껏 아끼고 사랑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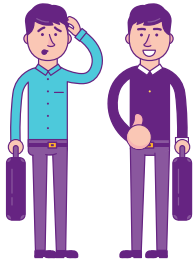


Benefit

2020,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직 공제회원만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 혜택 ‘공제회 복지 서비스 올 가이드’

풍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제회 복지 서비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이라면 놓칠 수 없는 특권이지요. 공제회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재직 기간 중 장기저축급여에 가입하면 일반회원이, 퇴직 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에 가입하면 특별회원이 됩니다. 금융 상품 가입 혜택 외에도 가입 기간과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부터 결혼·출산·퇴직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로 이미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공제회 복지 서비스. 올해도 다양한 혜택이 회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공제회원만을 위해 마련된 맞춤 서비스로 2020년을 더 풍성하게, 더 특별하게 만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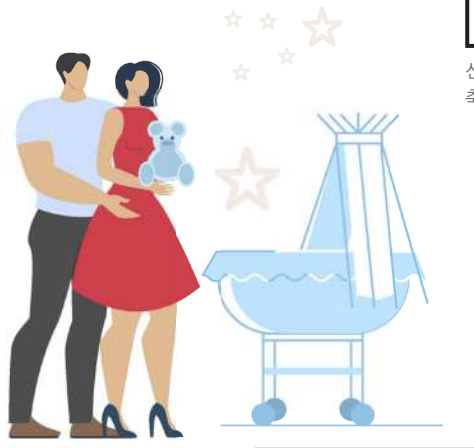


사회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초년생들, 응원합니다!

공제회 장기저축급여에 최초 가입해 일반회원이 되면 신규 회원 가입 축하 기념품이 증정된다. 미니믹서기, 핸디형스 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1회 부담금을 납부 후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기념품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송된다. 첫발을 내디딘 사회 초년생의

경우 주거지 마련, 학자금 상환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럴 때는 공제회 미소누리 최초대여를 이용해보자. 장기저축급여 가입 후 대여를 처음 이용하는 회원을 위한 제도로, 연이율은 2.99%(변동금리)다. 공제회 대여 최초 이용자만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단 1회, 최고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직장 생활 시작과 함께 자연스럽게 보험도 가입하기 마련. 공제회 생명보험인 교직원라이프부터 눈여겨보자. 종신·정기보험, 질병보험, 교직원특화보험 등 교직원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다양한 구성으로 높은 안정성과 낮은 부담금을 자랑한다.



신규회원 가입
축하 기념품



교직원 라이프



미소누리
최초대여

부모가 되는 가장 빛나는 순간, 함께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으로 엄마 아빠가 된 때만 한 게 있을까. 공제회도 회원의 소중한 추억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 출산 축하금을 전달한다. 출산 축하금은 회원 또는 회원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입양 시 첫째와 둘째는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을 지급한다. 1년 이상 가입한 회원만 자녀 출생·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부부 회원에게 각각 지급한다.

자녀가 태어나면 보육 비용도 만만치 않다. 여유 자금이 넉넉지 않다면 공제회 희망누리 출산대여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희망누리 출산대여는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입양한 경우 출산·입양일로부터 3년 이내, 자녀 1인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대여 한도는 자녀 1인당 최고 1000만원이다.

사랑하는 자녀를 각종 위험에서 지켜주고 싶은 것도 부모 마음이다. 공제회 생명보험 교직원라이프의 어린이 보험 자녀공제와 명품자녀공제를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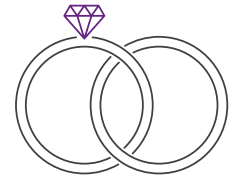
출산
축하금



희망누리
출산대여



어린이
보험



행복한 웨딩데이를 앞둔 당신,

축하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광주, 대전, 경기(수원), 전북(전주) 공제회관의 회원 예식장을 알아보자. 회원 및 회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의 결혼 시 예식장과 폐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he-K 호텔서울 등 공제회 직영 호텔의 공제회원을 위한 예식장 및 웨딩 할인, 프로모션도 체크해보자. 예식 비용 등으로 목돈이 필요하다면 행복누리 결혼대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회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예정)일 전후 6개월 내 회원 1인당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연이율 2.99%(변동금리)로 최고 3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결혼하는 회원을 축하하는 결혼 기념품도 놓치지 말자.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 블렌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결혼일로부터 5년 이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주택 마련을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면 든든누리 주택대여를 이용해보자. 회원 및 배우자의 주택 임차 및 구입을 위한 대여 제도로, 연이율 2.99%(변동금리)에 최대 3000만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일반 회원으로 부부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최초 1회만 이용 가능하다.



회원
예식장



행복누리
결혼대여



결혼
기념품



든든누리
주택대여



풍요로운 인생 2막, 열어드립니다!

퇴직 시에는 가입 기회가 단 한 번뿐인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가입을 우선 고려해볼 만하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정 금액을 정해진 기간 동안 분할해 수령 받는 노후 생활 보장 제도로 연 2.99%(변동금리)의 급여율(이율)에 저율과세, 중도해약·운용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퇴직 시 수령한 각종 연금이나 공제회 퇴직급여금 등을 위탁받아 높은 급여율(이율)로 운용해주는 퇴직생활급여도 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으로 특별회원이 되면 특별회원 가입 축하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 블렌더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초 1회 부담금을 납부 후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기념품 신청서를 접수하면 발송된다. 최초 가입 1회에 한하며,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퇴직 전 공제회와 오랜 기간 인연을 맺어온 회원을 위해서는 고구좌 회원 축하금제도가 있다. 고구좌 회원 축하금은 전년도 말 기준 장기저축급여 총누적 구좌 수가 상위 1% 이내, 가입 기간이 25년 이상 경과한 회원에게 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퇴직 후에는 공제회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The-K서드에이지를 삶의 터전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특별회원 가입
축하 기념품



The-K
서드에이지



쉽과 힐링의 시간, 선사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직영 호텔 운영을 비롯, 국내 유명 리조트의 회원권을 구입해 회원들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한다. 5개 직영 호텔에는 The-K호텔서울·경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The-K지리산·설악산가족호텔이 있다. 서울·제주·경주 호텔은 호텔형, 지리산·설악산 호텔은 콘도형이다. 공제회원 할인의 경우 예약하면 언제든 이용할 수 있으나, 여름철 성수기에는 매년 5월 중순 이후 객실 배정을 위해 사전 접수해야 한다.

한화콘도와 소노호텔&리조트는 업무협약을 통해 공제회가 법인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용을 원하는 공제회원에게 콘도·리조트 회원가로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다. 한화콘도는 전국 9개 지역에, 소노호텔&리조트는 8개 지역에 있다. 소노호텔&리조트의 경우 계열 호텔인 경기 고양과 전남 여수의 엠블호텔도 포함된다. 한화·소노호텔&리조트를 이용하려면 The-K교직원나라 '티치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이 밖에도 공제회는 전국 86여 개 호텔 및 리조트와 제휴하고 회원들이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예약은 숙소에 따라 인터넷 또는 전화로만 가능하며, 예약 시 반드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임을 밝혀야 한다. 또 공제·연금기관의 숙박 시설인 폴에이리조트 제주·해운대, 천안 상록리조트, 수안보상록호텔, 대천파레브호텔, 호텔 인터시티 등도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직영호텔



한화콘도



소노호텔&리조트
(구 대명콘도)



제휴
리조트·호텔





법률, 세무 부문 상담과 의료 부문 할인,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종종 있다. 생활 법률, 부동산 거래, 세금 관련 문의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궁금증에 대한 자문을 원할 때 공제회가 준비한 전국 15개 법률상담소와 6개 세무상담소를 이용해보자. 전화, 방문, 이메일 등 원하는 방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공제회원은 전국 80여 개 대형병원의 종합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본인과 배우자, 가족의 건강검진을 10~58%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건강검진 외에도 입원·진료비가 할인되는 병원도 있고, 장례식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병원도 있다.

국내 최고의 믿음직한 상조 회사 The-K예다함상조도 빼놓을 수 없다. 장례를 치를 시 절차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비용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전국 직영 운영, 일대일 밀착 케어, 장례지도사 정직원 채용 등을 통해 제공하는 품격 높은 장례 서비스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The-K손해보험의 자동차 보험 에듀카도 높은 재가입률을 자랑하며, 그 밖의 다양한 교직원 맞춤형 보험 상품도 눈여겨볼 만하다.



법률·세무
상담소



The-K
예다함상조



The-K
손해보험

레저·스포츠·교통·문화공연 할인, 독소리나게 해드립니다!

공제회원이라면 레저·스포츠·교통·문화 공연 등도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회원이라면 기업 우대 로그인을 통해 항공권을 할인 예약할 수 있다.

한편, 소피아그린CC는 한국교직원공제회 출자회사로 경기 여주에 위치한 퍼블릭 골프장이다. 3코스 27홀로 공제회원은 평일 9만원, 토요일·공휴일 13만원의 그린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서산수 골프앤리조트, 아덴힐리조트앤골프클럽 등 제휴를 통한 회원 할인 골프장도 마련돼 있다. 또한 공제회원이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파크, 세종문화회관, 난타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다양한 문화공연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
·교통



소피아그린CC



문화·공연

The-K행복서비스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더 즐겁게 누리보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과 회원 가족의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The-K행복서비스를 연중 펼치고 있다. 뮤지컬, 음악회, 콘서트 등 각종 공연부터 영화예매권·도서 증정, 교육 체험 활동, 프로야구 관람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인다. 참여를 위해서는 행사 개최 전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응모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예술적 재능과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2020년 제4회 행사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퇴직한 특별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The-K은빛동행 행사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계절별 테마 여행, 명사 소통 특강, 콘서트, 자서전 출판 프로젝트 등 시니어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접 찾아가 공연을 펼치는 찾아가는 행복나들이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문화 혜택 소외 지역의 학교·교육기관을 찾아가 소규모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행복나들이Ⅰ과 전국 교육연수원에서 명사 강연회 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 등을 펼치는 행복나들이Ⅱ로 구성돼 있다. ㉞



The-K
행복서비스





우리 인생의 찬란한 황금기를 이곳에서! The-K서드에이지를 가다

The-K서드에이지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노후에 대한 걱정은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들에게는 남의 얘기일 수도 있다. 바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한 'The-K서드에이지'가 있기 때문이다. 최상의 시설과 서비스로 노후를 보다 안락하게 만들어줄 제3의 인생(The Third Age, 서드에이지)을 선물하는 그곳을 만나 보자.

글. 이경희 사진. The-K서드에이지 제공

행복한 노후를 책임집니다

The-K서드에이지는 경남 창원군 고암면에 자리 잡고 있다. 아름다운 산세와 숲에 둘러싸인 이곳에 발길을 내딛는 순간 작은 탄성이 터져 나온다.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깨끗한 공기와 아름다운 자연이 선물하는 힐링의 느낌이 폐부 가득히 들어차기 때문이다. 넓고 쾌적한 로비, 마주하는 직원들의 환한 웃음, 오가는 기존 거주자들의 여유로운 표정은 이곳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The-K서드에이지는 한마디로 즐겁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거대한 시설이자 시스템이다. 통상 노후생활의 중요 요소로 행복과 건강, 더불어 사는 삶을 꼽는

지금, 이곳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주거기능을 넘어서 의료, 문화, 레저까지 아우르는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곳을 꼼꼼히 살펴 보자.

The-K서드에이지는 주거동 222세대의 대형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30평형, 40평형, 50평형까지 총 8개의 타입으로 다양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다. 입주회원의 20% 이상이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이주해 오는 편인데, 서울과 수도권의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많은 거주자가 이곳을 선택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건강하게, 더 즐겁게, 여럿이 어울리며

입주회원들이 The-K서드에이지를 믿고 찾는 데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공신력과 더불어 믿을 만한 입주계약이 큰 역할을 한다. 장기임대 방식으로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 되는데 입주보증금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입주회원의 보증금을 전액 보장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세미나실, 영화감상실 등 취미 교실이 준비돼 있고 입주자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사우나, 탁구장, 당구장 등의 시설도 갖춰져 있어 별도의 비용 없이 활기찬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입주자들이 함께 취미를 즐기고 활동하다 보니 가곡애창,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바둑, 붓모임, 색소폰, 합창, 오카리나, 하모니카 등 다양한 동호회를 운영 중이며, The-K서드에이지는 입주자들의 동호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The-K서드에이지 내부에 자리잡고 있는 프라임 요양병원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후에 큰 역할을 한다. 내과, 일반외과 등의 진료과목이 개설되어 있어 치료가 필요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정신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한의학과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말 그대로 함께 어울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 공간이 바로 이 The-K서드에이지인 것이다.

제3의 삶을 사는 데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를 자처하는 The-K서드에이지.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으로서 또 하나의 자부심, 긍지로 자리 잡은 이곳에 관심을 기울여보자. ㉔



Mini Interview



“노후의 삶을 함께하고 싶은 곳”

윤태진 회원

아내와 함께 1박 체험을 하기 위해 창녕군에 자리 잡은 The-K서드에이지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황금 들녘이 가득 펼쳐진 전원 풍경으로 저희 부부의 마음을 한 번에 사로잡았지요. 입실 수속을 밟으면서 상냥하고 친절하신 직원들에게 첫 번째로 감동을 받았고 잘 정리된 실내의 환경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끼니마다 맛갈스럽게 차려지는 식사는 또 얼마나 맛있던지요. 다양한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동호회,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의료 시스템 또한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여기에 금상첨화(錦上添花) 격으로 세탁, 청소 등 제반 사항들을 자체 운영 시스템으로 차질 없이 깔끔하게 함께 해결해 주는 모습에 아내가 “세상에 어디 이리 좋은 데가 또 있을까”하며 연신 감탄사를 연발해 저 또한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창녕군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즐거움 또한 컸지요. 다음에는 일정을 넉넉히 잡아 여유롭게 이곳의 생활을 즐겨보고 더 늦기 전에 이곳으로 거처를 아주 옮겨 유유자적하며 복된 노후를 누리하고자 합니다. 노후를 고민하시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2월 말 퇴직 예정 회원 급여 청구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20년 2월 말 정년·명예 퇴직 예정인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를 접수한다.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장기저축급여 청구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거나, 시·도지부 회원 상담 창구에 내방하여 접수하면 된다. 퇴직일 이후에는 부가금(이자)이 발생되지 않으며, 목돈급여에 가입한 회원은 목돈급여를 우선 청구한 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청구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거나,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가입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연금처럼 나눠 지급받는 상품으로 높은 급여율(2.99%, 연복리, 변동금리), 저율과세 등에서 혜택이 큰 퇴직회원 전용 금융 상품이다.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 시 단 한번만 가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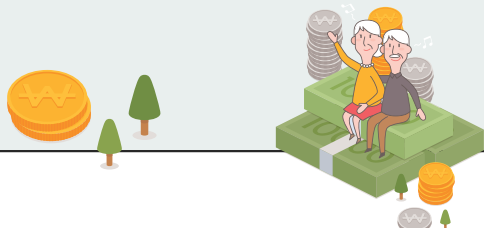
▶ 장기저축급여 청구 방법

홈페이지 청구 시	방문·우편 청구 시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 인터넷 창구 → 저축 → 청구/장기저축급여	- 장기저축급여 청구서 1부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 (원본 대조필)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본 1부 제출
- 은행공 인공인증서 인증 필요 - 퇴직(예정)증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를 스캔하여 첨부(JPG, PDF파일) ※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 기재 ※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구 분	주요내용
가입금액	장기저축급여 세후 퇴직급여금 이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
가입기간	5년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이 율	연복리 2.99% (변동금리)
원리금 지급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지급 (즉시 지급형, 거치기간 없음)
지급주기	매년, 매월 (지급일 : 5일, 15일, 25일 중 선택)
신청방법	- 장기저축급여 퇴직 청구 시 신청 가능 (탈퇴 회원 신청불가) - 채널 : 시·도지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홈페이지 신청
유의사항	-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수령 후 가입신청 불가 - 해약수수료 없이 전체 해약 가능 (일부 해약 불가) - 해약 후 재가입 신청 불가

☎ 1577-3400



회원 문화행사 참가비로 조성한 ‘The-K행복기부금’ 전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2월 27일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엔젤스 헤이븐, 휴먼인러브, 문수종합사회복지관 5개 기관에 ‘The-K행복기부금’ 7450만원을 전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대상으로 제공하는 뮤지컬, 콘서트, 클래식 등 문화 복지 프로그램인 ‘The-K행복서비스’에 참여하여 회원들이 납부한 소정의 참가비를 사회공헌기금 ‘The-K행복기부금’으로 전환하여 2014년부터 매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행복한 동행’ 희망나눔캠페인 기부금 전달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교육현장 지원’, ‘교육기회 나눔’을 위해 공제회 임직원이 희망나눔캠페인에 참여하여 모은 기부금에 공제회 사회공헌비를 더해 조성된 1억여원의 기부금을 1월 10일 세이브더칠드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지파운데이션 3개 기관에 전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매년 초 공제회 임직원이 개인적인 희망 목표와 함께 목표의 달성 또는 실패 시 기부 적립액을 설정하는 희망나눔 캠페인을 통해 2012년부터 매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고 있다.

“공제회 가입·결혼축하선물 꼭 챙기세요” 복지부조 기념품 변경 … 3종 중 1종 선택

2020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복지부조 기념품이 변경된다. 특히 이번에는 공제회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회원이 입·재가입·특별회원가입 축하기념품의 지급 방식을 1종 일괄 지급에서 3종 중 선택 1종으로 변경하여 회원 선택의 폭을 확대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퇴직 등에 맞춰 기념품을 비롯한 다양한 부조 혜택을 제공하며, 상세 신청 조건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신규가입·재가입 축하기념품 : 미니믹서기, 핸디형스팀다리미, 전동칫솔 중 선택 1종

◆ 특별회원 가입·결혼기념품 : 전자오븐, 커피머신, 초고속블렌더 중 선택 1종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310명 추첨하여 SK, CU 모바일상품권 증정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The-K 매거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회원 중 추첨을 통해 2월 21일 10명에게 SK 모바일주유권을, 300명에게 CU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본 이벤트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공제회는 이번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신규 매거진 기획에 독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The-K, 무장애교실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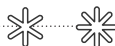
장애인 교원 교육 보조기기 지원 안내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장애인 교원의 교육 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18년부터 한국장애인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장애인 교사가 수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올해도 연중 시행한다.

장애인 교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보조기기는 점자 정보 단말기, 점자 프린터, 특수 키보드, 자세 보조 장치, 소리 증폭장치 등이다. 교육 보조기기는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직 중인 장애인 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품목은 중증장애 500만원, 경증장애 300만원 내에서 1인 1품목씩 지원한다. 대상자 심사 및 지원기기는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신청기간 및 선정자 발표 일정은 추후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

The-K호텔 겨울 소식



The-K호텔서울, 창립 30주년 감사 이벤트



The-K호텔서울은 2020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객실 특가 이벤트를 6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일반실 1박 기준 일~월요일 8만원, 화~목요일 9만 9000원, 금·토·공휴일 전일은 11만원 ▶일반실 1박, 1인 조식 뷔페 패키지 기준 일~월요일 10만원, 화~목요일 11만9000원, 금·토·공휴일 전일은 13만원 특가로 이용할 수 있다(조식뷔페 1인 추가 시 2만원 추가요금 적용).

또한 경자년 새해를 맞아 뷔페 레스토랑 더파크 이용권을 3만 7000원에 특가 판매한다. 주중·주말 상관없이 사용 가능하며 4월 30일까지 판매한다. 단, 구매한 더파크 이용권은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02-571-8100



The-K설악산가족호텔, 신년맞이 사우나 패키지

The-K설악산가족호텔은 신년을 맞아 경제적인 가격으로 편안한 동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할인된 요금으로 객실과 사우나 이용 가능한 패키지를 3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사우나 패키지는 객실 1박과 사우나 2인 이용권으로 구성되며, ▶20평형 기준 주중 3만8000원, 금요일 5만8000원, 토요일 7만3000원 ▶29평형 기준 주중 6만8000원, 금요일 9만3000원, 토요일 11만3000원이다. 성수기 및 설연휴기간은 별도 요금으로 적용된다.

또한 장기투숙객을 위한 휴스테이 힐링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연에서 편안한 휴식과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휴스테이 이용회원을 위해 20평형과 29평형을 특별 할인 금액으로 제공한다. 8박 이상 투숙 시 8일째부터 20평 기준 1만 5000원부터 이용 가능하다. ☎033-639-8100

The-K호텔경주, 온천힐링·스노파크·시네마 패키지

The-K호텔경주는 새해를 맞아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온천힐링 패키지’, ‘스노파크 패키지’, ‘시네마 패키지’를 2월 29일까지 선보인다. 단, 성수기인 2월 29일은 별도 요금이 적용된다.

‘온천힐링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사우나 2인 구성으로, 일~목요일 13만4000원, 금요일 14만4000원, 토요일 15만4000원이다.

‘스노파크 패키지’도 지난달에 이어 2월 29일까지 판매한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경주월드 자유이용권(눈썰매장 입장권 포함) 2매 구성으로, 일~목요일 17만6000원, 금요일 18만6000원, 토요일 19만6000원이다.

또한 ‘시네마 패키지’는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시네큐 영화관람권 2매 구성으로, 일~목요일 13만2000원, 금요일 14만2000원, 토요일 15만2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054-745-8100

The-K Guide

공제회의 각종 금융제도와 복지서비스 보험 2편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 1971년 특별법(법률 제2296호)에 의해 설립된 교직원복지기관으로 교직원의 퇴직 후 노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과 교육가족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의 경우 대부분 비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선택한 납입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만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며, 국내 최초로 교직원 전용 위험률을 산출하고 여기에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부과하므로 저렴한 보험료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회원 수
81 만명

자산
37 조 원

상해보험

재해공제

- ★ 비갱신형, 100세까지 보장
- ★ 야외활동 많은 방학기간(1·2·7·8월) 동안 2배 더 보장
- ★ 교통재해장해, 재해수술보장 등 교통사고 대비 빈틈없는 보장(특약 가입 시)
 - 가입나이 : 만 15세~65세
 - 보장기간 : 85세 만기,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60·70·80세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일시납

시니어 보험

시니어공제 제2의 인생, 시니어라이프를 위한 장기요양보험

- ★ 최고 75세까지 가입 가능, 처음 보험료 그대로
- ★ 장기 요양 1등급 판정 시 최대 1억원 지급 ※최초 1회에 한함, 10구좌 가입 시
- ★ 10대 시니어질환까지 탄탄보장(특약 가입 시)
 - ※10대 시니어질환 : 고혈압, 당뇨,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골다공증, 폐렴, 천식, 갑상선 장애, 담석증
- 가입나이 : 40세~75세
- 보장기간 : 85세 만기, 100세 만기
- 납입기간·주기 : 5·10·15·20·25·30년납, 60·70·80세납 / 월납, 연납, 일시납

시니어암공제 고령층(고혈압, 당뇨환자 포함)을 위한 암보험

- ★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50세~80세까지 가입 가능
- ★ 시니어암, 2대 질병 진단보장 강화(특약 가입 시)
 - ※시니어암 : 대장암, 담낭(쓸개)암, 췌장암, 폐암, 골수암
 - 2대 질병 : 급성심근경색증, 뇌출혈
- 가입나이 : 50세~80세
- 보장기간 : 10년 만기 갱신형(최대 100세 보장)
- 납입기간·주기 : 전기납 / 월납, 연납

○ 방문시간 9:00~18:00
○ 전화상담 1577-3993

※'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조



자녀보험



자녀공제 월 1만원으로 자녀를 지키는 어린이보험

- ★ 월 1만원으로 30세까지 보장
- ★ 재해장해 최고 1억원, 소아암 6천만원까지 보장
 - 가입나이 : 0세(태아포함) ~15세
 - 보장기간 : 30세 만기 ※선천이상수술특약은 3년 만기
 - 납입기간 주기 : 전기납 / 월납

명품자녀공제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한 번에 해결하는 어린이보험

- ★ 비갱신형, 출생부터 100세까지 보장
- ★ 교육자금 지급 (교육자금형 가입 시)
 - 가입나이 : 0세(태아포함) ~15세
 - 보장기간 : 30세 만기, 100세 만기 ※일부특약 보장기간 상이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태아특약은 전기납
 - 납입주기 : 월납, 연납, 일시납

치매 보험



치매공제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하는 교육가족 치매보험

- ★ 중증치매 진단 및 중증장기요양 진단 시 월 100만원 종신 지급(2구좌 가입 기준)
- ★ 2대 질병(허혈성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보장 확대(특약 가입 시)
 - 가입나이 : 20세~75세
 - 보장기간 : 90세 만기,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70·80·90세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간편가입치매공제 유병자, 고령자를 위한 치매보험

- ★ 유병자,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가능
- ★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보장범위 확대
- ★ 중증치매 진단 및 중증장기요양 진단 시 월 100만원 종신 지급(2구좌 가입 기준)
 - 가입나이 : 20세~75세
 - 보장기간 : 90세 만기, 100세 만기
 - 납입기간 : 5·10·15·20·25·30년납, 70·80·90세납
 - 납입주기 : 일시납, 월납

※ 특화보험 상품 가입자에 한해 제공하며, 마음건강 치료 서비스는 지급사유 발생 시 이용
 ※ 교직생활퍼펙트공제 상품의 경우, 초·중·고 교원만 가입 가능

교직생활퍼펙트공제·마음건강보장공제
 가입 시 누릴 수 있는 혜택

건강관리 서비스



전화 건강상담



건강검진 예약



대형병원 진료예약



전화 심리상담

의료지원 서비스



방문 간호서비스



차량 에스코트

특화서비스



마음질환 관리



교직원질환 관리



임신, 출산관리



운동습관 개선



건강 정보

마음건강 치료



대면심리상담치료



심리 검사



가족 심리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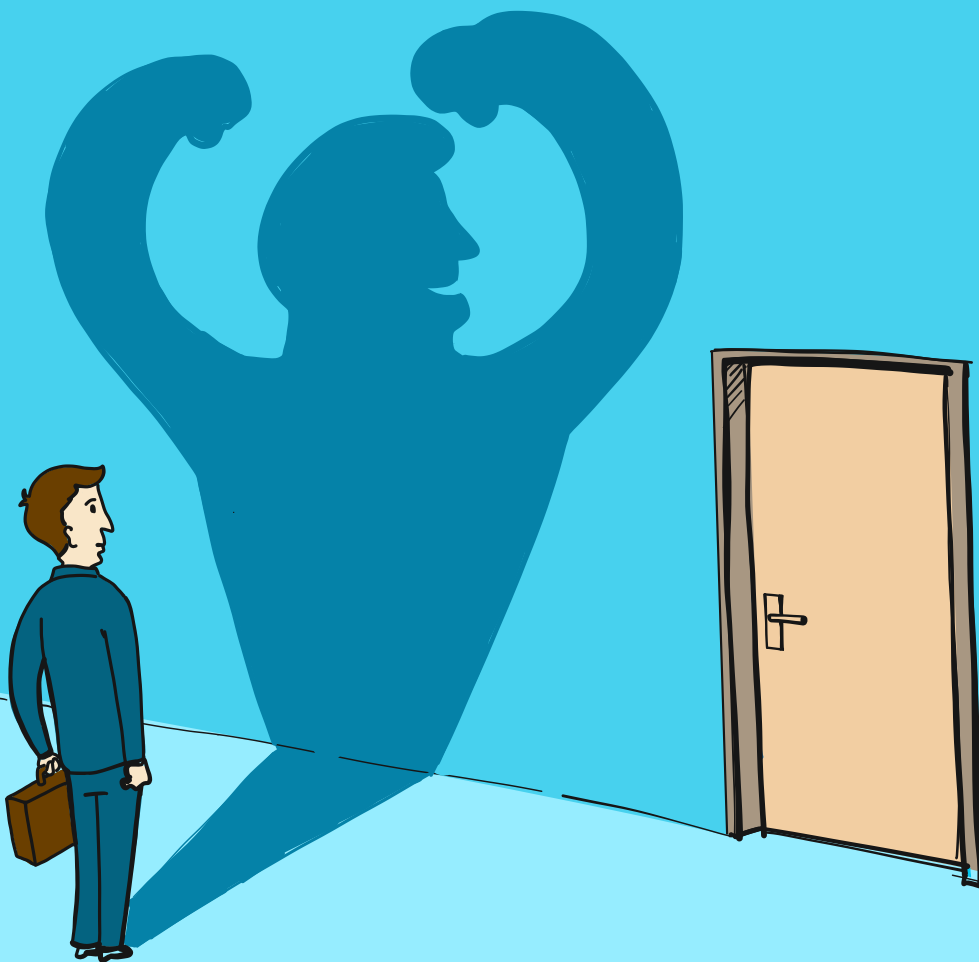


1:1 고객관리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시대 변화와 셀프 리더십’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아 문제에 신속하게 반응하고 명쾌하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21세기일수록 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고, 요구되는 리더의 덕목도 달라졌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이끄는 셀프 리더이고 모두가 삶의 영역에서 리더와 팔로워가 되는데, 시대 변화에 따라 혁신을 관리하며 진정한 셀프 리더로 거듭나는 리더십에 대해 살펴본다.

글. 이민영(현대경제연구원 전문교수)



리더십의 변화

리더십이라 하면 ‘리더’가 가져야 하는 역량으로 생각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21세기에 생존하는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후배를 이끌기 이전에 나를 먼저 이끌 수 있는 리더십, ‘셀프 리더십’이 주요한 역량임을 기억하자. 스스로 자문해보자. 나는 내 인생에서 얼마나 주도적으로 나의 행동을 이끄는가? 우선은 셀프 리더십이 잘 정립되고 발전적인 사람이어야 조직 내 리더십 역량이 자연스레 발휘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사회변화와 스스로를 이끄는 힘

“제자리를 지키려면 더욱 빨리 뛰어야 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한 대사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뛰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의미로, ‘붉은 여왕 효과’라고 한다. 우리가 실제 경험한 변화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컴퓨터의 도입, 스마트폰의 도입, 포털 사이트에서 유튜브로의 변화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의 주기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하는 역량은 무엇일까? AI 시대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스스로에게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채워 나갈 방법을 찾는 것이다. “무엇이 뜬다고 하더라.” “자네, 이것 좀 공부해 보지?” 등으로 역량을 채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끄는 힘, 역량을 채워 나가기 위해 셀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가장 쉬운 방법부터 찾아보자.

일터 학습자로서의 역량

일터에서 업무를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지를 고민해 보자. 3가지를 언급하고 싶다. 성과, 학습, 그리고 즐거움이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업무를 통해 성과를 내야 한다. 또한 업무를 통해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 안에서 일의 즐거움도 느끼게 된다. 셀프 리더라면 이 3가지 중에서 학습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개인의 의지가 가장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학습’이기 때문이다. 일터 안에서 발생하는 학습을 ‘일터 학습(work place learning)’이라 하며, 셀프 리더가 갖춰야 하는 역량 중 하나가 바로 ‘일터 학습자(work place learner)’로서의 역량이다. 이 단어를 잘 기억해두기 바란다. 우리는 평

생학습 시대에 살고 있으며,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끝’이 아닌, ‘일터 학습자’로 살아야 함을 독려해 주어야 한다.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부터 살펴보자.

셀프 리더십을 이루는 습관, 50일의 꾸준함

대한민국 성인들의 연간 독서량은 얼마나 될까? 2019년 통계청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1년에 평균 7.3권의 책을 읽고 있다고 한다. 한편, 성인 10명 중 4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책을 읽는 사람만 계속적으로 독서를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책을 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물어보니, “업무나 학업 때문에 바빠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 시대의 대표적 지성’으로 손꼽히는 이어령 선생은 자신의 지식의 원천이 독서라 했는데,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로 개인적인 약속을 하지 않기로 유명하다. 저녁 6시 이후는 책을 읽는 시간이며, 이 습관은 6세 때부터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약속은 조찬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하는데, 제한된 시간에 밀도 있는 미팅을 하기 위함이다. 다른 의미로는 저녁시간에 약속을 잡게 되면, 여유롭다는 생각에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책을 읽을 시간,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하지만, 우리들이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안다. 저녁 퇴근 이후라 할지라도 직장생활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공부를 하거나 책을 붙잡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이어령 선생이 6세 때부터 해왔던 건 뭘까? 독서가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도 습관 형성을 학습과 관련된 내용과 연결을 지어 실천해 볼 수 있다.

습관의 임계치라는 말처럼, 하나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50일의 꾸준함이 필요하다. 50일을 꼭 참고 진행하다 보면 51일부터는 습관적으로 책을 들춰보고, 습관적으로 운동을 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공부를 하려고 찾아 헤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셀프 리더십이야말로, 21세기 직장인에게 필수 불가결한 리더십이다. ㉔



이번 호 「The-K 매거진」을 잘 읽어보셨나요? 아래 퀴즈의 정답을 모두 적어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해 10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1만원)을 드립니다.

※ 독자퀴즈는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내실 곳 : 「The-K 매거진」 편집실 thekmagazine@ktcu.or.kr

정답과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응모 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Quiz 1.

대한민국 제1대 대법원장으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농민, 노동자들을 변호하며 법정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선생의 이름은?

○○○ (18-21p 참고)

Quiz 2.

실리콘 밸리의 마운틴 뷰에 위치한 곳으로 칸 아카데미 대표인 살만 칸이 교육 혁신을 위해 설립한 학교 이름은?

○○○○ (26-27p 참고)

Quiz 3.

경남 창녕군에 위치한 곳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출자하여 특급호텔식 첨단 주거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갖춘 고품격 실버타운으로 은퇴 후 즐거운 제3의 인생을 선물하는 이곳의 이름은?

The-K ○○○○○ (74-75p 참고)



※ 12월호 독자퀴즈 및 독자의견 선정자는 웹진(www.thekmagazine.co.kr) 혹은 QR 코드를 통해 2월 1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월호 선정자는 2020년 3월 1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K 매거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따뜻한 칭찬부터 톡톡 튀는 아이디어, 그리고 따끔한 충고까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총 120명의 독자님들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교육 트렌드와 혁신 현장을 알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힐링배달 프로그램과 행복 콘서트를 통해 더불어 즐거움을 느꼈다는 소감들도 전해주셨습니다. 또한 앱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12월호부터는 독자 퀴즈 중 '다른 그림 찾기'를 배제하고, 좀 더 쉽게 응모할 수 있게 일반 퀴즈 문제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텍스트 크기가 작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전체 텍스트를 키워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즉석당첨 이벤트 선물 중 외국 브랜드의 커피 음료에 불편함을 느낀 독자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국내 커피 브랜드로 바꿔 선물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건강 정보를 지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의견들을 즉각적으로 모두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추후 기획·편집 시 참고하여 최대한 독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독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20년에도 크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성장하는 The-K 매거진이 되겠습니다.

이번 호를 읽고 느낀 점과 좋았던 코너나 내용, 새로운 의견(The-K 매거진에 바라는 점) 등을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3만원)을 드립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이메일 thekmagazine@ktcu.or.kr

*이메일을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분의 성함, 분회명(현재 혹은 퇴직하신 소속 기관명),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세요.



독자 의견



달콤한달

2월은 더 풍성하다고 전해라

The-K 매거진
2월 즉석당첨
이벤트

| 이벤트 기간 | 2월 1일 ~ 2월 29일

The-K와 함께 맞는 스위트한 날들!
풍성한 2월 이벤트로 조금 더 가까이,
사랑을 전하세요~♡



SPC 모바일상품권
10,000원권(100개)



베스킨라빈스 모바일교환권
5,000원권(200개)



이디야 카페라떼
Regular(500개)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2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 마음에 드는 상품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트콘은 3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일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부정확한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The-K는 소비자중심경영(CCM)을 통해 회원 사랑을 실천합니다

